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시여
인민의 힘을 믿고
가수후비육성에 일생을 바치다
금수강산
8
주체110(2021)
루계 제384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1 ISSN 1727—9062

차 례

주체110(2021)년 8월호

표지: 방직공영웅과 새 세대 방직공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방직공영웅 전옥화녀성.
비록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였지만 오늘도 그는 일터에서 새 세대 방직공들에게 전세대 방직공영웅들이 지녔던 투쟁정신을 심어주며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 진행 · · · · · · · · · · · · · · · · · · 2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정신은 빛나게 계승될것이다 · · · · · · · · · · · · · · · · · 8
제7차 전국로병대회 성대히 진행 · · · · · · 12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시여 · · · · · · · 14
지향되는 록색에네르기 · · · · · · · · · 20
생태환경보호와 미래 · · · · · · · · · · 22
록색형의 려명거리 · · · · · · · · · · · 24
부부산림감독원 · · · · · · · · · · · · · 28
인민의 힘을 믿고 · · · · · · · · · · · · 32
한홉의 미시가루 · · · · · · · · · · · · 34
일 화
위민헌신의 나날에 · · · · · · · · · · 3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새 무장력의 탄생 · · · · · · · · · · · 36
군력강화의 길에서 · · · · · · · · · · · 38
방직공영웅들 · · · · · · · · · · · · · · 40
품질우선, 신용중시로 · · · · · · · · · · 44
2020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들 · · · 46

제384호
주체78(1989)년 8월 창간

청년들의 탄원열풍 · · · · · · · · · · · · 48
수 기
백두청춘시절을 돌이켜볼 때마다 · · · · 52
해외동포조직들이 추모모임 진행 · · · · · 53
가수후비육성에 일생을 바치다 · · · · · · 54
꼬마신동들 · · · · · · · · · · · · · · · · 58
조국의 품에 안겨
장내비루스의학자 · · · · · · · · · · · · 60
《백살차》로 불리우고있는 백산차 · · · · 62
주저없는 행동, 만사람 감동 · · · · · · · 64
미래가 웃는 땅 · · · · · · · · · · · · · 66
8월의 절기와 민속 · · · · · · · · · · · 67
죄악의 력사를 되살리려는 일본 · · · · · 68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27) · · · · · · · 70
중세시기의 성악연주형식 · · · · · · · · 71
함경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3) · · · · 72
지명유래
황해북도의 일부 지명들 · · · · · · · · 73
민족의 향기
조선민요 《양산도》 · · · · · · · · · · 74

상 식
변하지 않는 고구려무덤벽화의 색채 · · · · · 59
앙부일구 · · · · · · · · · · · · · · · · · · 60
쑥의 약효 · · · · · · · · · · · · · · · · · 70
유모아
아버지가 몇인가? · · · · · · · · · · · · · 67
조선속담 (우둔성) · · · · · · · · · · · · · 69

편집: 최경희, 변일진, 김유일, 리경훈
ㄱ-2180147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국가방위력의 중추이며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의 군사정치적위력과 혁명적투쟁정신을 더욱 제고하고 당중앙의 중대한 군사전략전술사상과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부합한 군건설방향과 방침들을 군정간부들에게 재침투, 체득시키기 위하여 전군군정간부들의 대회합을 조직하였다.

건군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강습회는 조선인민군 각급부대, 련합부대, 대련합부대들을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드는 강철의 정치사상강군으로, 무적필승의 전투대오로 만들며 이 영예로운 과업수행에서 군정간부들이 핵심골간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각성분발시키고 고무격려하며 전면적으로 재무장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되였다.

강습회에는 조선인민군 각 군종, 군단, 사단, 려단, 련대 군사지휘관, 정치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 개강사를 하시고 1일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강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혁명의 새 승리를 위한 견인불발의 투쟁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가 뜻깊은 전승절을 앞두고 진행된다고 하시면서 당 제8차대회 이후 인민군대의 첫 회합으로 전군 부대, 련합부대, 대련합부대

군정간부들의 대회합을 마련한 목적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당중앙은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승리를 쟁취해나가는데서 인민군대 각 군종, 군단들과 사단과 려단, 련대를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의의를 특별히 중시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군력강화의 전초선에서 그리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대격전장들에서 헌신분투하고있는 각급 부대 군정간부들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다고, 뜻깊은 자리를 빌어 전군의 군인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각급 군지휘관들과 정치위원들이 이번 강습회를 통하여 군종, 군단, 사단, 려단, 련대강화의 중요성과 당의 군건설정책방향과 방침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그를 위한 묘술과 방법론을 찾아쥐며 자신들을 혁명적으로 수양단련하는 더없이 귀중한 계기로 여기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강습회가 전군의 군정간부들을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의 참된 지휘성원으로 준비시키는 간부혁명화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부대들의 작전전투능력과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데서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개강을 선언하시였다.

강습회에서는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 2일회의에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이 제시한 군건설로선과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현시기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중대한 혁명적인 투쟁과업들과 강습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결론에서 먼저 건군사상 처음으로 되는 전군적인 중견지휘간부들의 대강습을 조직한 취지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강습회를 전승절을 택하여 조직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사상초유의 도전과 시련들이 첩첩히 가로놓여있고 한치한치를 강의한 의지와 단호한 결단으로 헤쳐야 하는 지금 그 무엇보다 소중히 새겨안고 오늘의 현실로 재현해야 하는것이 위대한 전승의 전통이라고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결론에서 부대, 련합부대, 대련합부대들을 강화하기 위한 총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각급 인민군부대들앞에 나선 총적과업은 조선로동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불패의 전투대오로 만드는것이라고 정식화하시고 이것은 부대들을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령도에 절대충성, 절대복종하는 정치사상집단으로 만들며 모든 작전과 전투, 부대관리와 지휘관, 병사들의 군무생활을 조선로동당의 정책과 방식대로, 당의 의도대로 진행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과업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휘관, 정치일군들이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에도 능동적이며 공세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완성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당과 우리 혁명이 인민군대에 준 지상의 명령이며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고 지휘성원들이 목숨을 걸고 책임져야 할 초미의 과제라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결론에서 각급 부대들이 훈련혁명 5대방침을 틀어쥐고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킬데 대한 과업과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다 개선된 군무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데서 나서는 방도적문제들을 상세히 밝혀주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결론에서 군정간부들의 자질과 수준,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바라는 군지휘관, 정치위원

은 철저히 조선로동당화된 지휘성원이며 이는 조선로동당에 무한히 충직한 전통을 이어받고 조선로동당에 고유한 능숙한 작풍과 완강한 전투적기질을 소유한 군정간부라고 가르치시였다.

전군강화에서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국방성의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이 인민군대앞에 제시한 전투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는데로 당정치사업과 군사사업을 확고히 지향복종시키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명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결론을 마치시면서 모두다 향도의 우리 당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안녕과 영원한 부강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강습회참가자들을 위한 집중강습이 있었다

강습회 3일회의에서는 전화의 근위부대 지휘관들이 보여준 숭고한 투쟁정신과 기풍을 본받아 당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들을 철저히 집행하며 부대들의 군사정치사업을 한계단 도약시키는데서 나서는 방도적인 문제들을 체득시키기 위한 강습이 진행되였다.

강습에서는 전승세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따라배워 부대들을 당중앙결사옹위의 결정체로 억세게 다져나갈데 대한 문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이 발휘한 불굴의 조국수호정신과 영웅적인 전투정신으로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대처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출데 대한 문제, 전승세대가 창조한 혁명적인 투쟁기풍, 생활기풍이 모든 부대들에 차넘치게 할데 대한 문제들이 취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폐강사를 하시였다

전군의 모든 부대들을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절대충성하고 절대복종하는 불패의 전투대오로 만들 군정간부들의 드높은 열의가 세차게 끓어번지는 가운데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가 4일회의로 7월 27일 폐강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폐강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부대장, 정치위원들이 부대를 혁명보위, 조국보위의 강력한 보루로 만들겠다는 높은 목표와 강렬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강습회에서 제시된 투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기 군종과 자기 군단, 자기 사단, 자기 려단, 자기 련대를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재삼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늘의 시련이 아무리 엄혹하다고 해도 지휘관, 정치일군들이 조선로동당의 불굴의 혁명투쟁정신과 의지로 살며 투쟁해나간다면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하시면서 불패의 혁명적당군인 인민군대를 믿고, 전군의 군정간부들을 믿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군정간부들이 당의 군건설중요사상과 이번 강습회에서 강조된 과업과 방도들을 가슴깊이 새기고 헌신분투함으로써 부대의 전투력강화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리라는것을 확신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폐강을 선언하시였다.

주체의 군건설사에 특기할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는 전군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 * *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정신은 빛나게 계승될것이다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주체110(2021)년 7월 27일

존경하는 전쟁로병동지들!

우리모두가 항상 공경하고 귀감으로 모시는 혁명의 로선배인 동지들과 또다시 자리를 함께 하고 우리 조국의 위대한 전승절을 경축하게 되니 기쁨과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우리 국가와 인민에게 있어서 세세년년 긍지높이, 자랑스럽게 추억할 위대한 전승의 력사는 억만금으로도 살수 없는 제일재산입니다.

더우기 전설적인 영웅시대의 주인공들, 산 증견자인 로병동지들을 모시고 자주 뵈옵는것은 우리 세대가 누리는 무상의 행운으로, 영광으로 됩니다.

나는 3년간의 가렬처절한 포화속에서 기적의 전승신화를 안아오고 자기의 시대를 영웅적으로 빛내였으며 오늘은 이렇게 정정한 모습으로 전승절행사에 참석하여주신 존경하는 로병동지들과 온 나라의 조국해방전쟁참전자, 전시공로자동지들에게 깊이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조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친 인민군렬사들과 애국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견인불발의 힘찬 투쟁속에서 승리의 7. 27을 맞는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전호에서 고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린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지원군 로병동지들에게도 뜨거운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로병동지들!

우리 공화국의 영광찬란한 발전행로에서 혁명의 2세인 전승세대가 쌓아올린 공적은 거대한 력사적봉우리로 우뚝 솟아 빛나고있습니다.

강대하고 아름다운 이 조선의 귀중한 모든것은 동지들이 대표하는 위대한 세대의 공적과 하나로 잇닿아있습니다.

수천만 인민의 자유로운 삶과 참다운 우리의 제도, 수려한 산천과 옥야천리, 귀중한 자연부원은 조국의 한치한치땅을 피로써 지킨 무수한 용사들의 위훈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1950년대의 영용한 조국방위

자들이 미제국주의의 날강도적인 침략을 결사적으로 격퇴하였기에 오늘에 이르는 여러 세대의 후손들이 노예의 수난을 모르고 자주적인민의 존엄을 누릴수 있었습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국가무력침범자들을 꺾고 전승이라는 경이적인 미증유의 사변을 이루어낸 전승세대의 위대한 공적이 있었기에 조국의 운명과 미래는 구원될수 있었으며 우리 후대들은 영웅조선, 영웅인민이라는 위대한 명성과 영예를 물려받을수 있게 되였습니다.

동지들!

우리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새겨진 전승세대의 공적중에서 제일 귀중하고 값진것은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기풍을 창조한것입니다.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낳은 투쟁정신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와 기적을 탄생시키는 진함없는 원천으로 됩니다.

전승세대가 발휘한 위대한 영웅정신을 되새겨볼 때 세인을 경탄케 하고 심장을 격동시키지 않는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수령께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최후의 결사전에 주저없이 나서고 사지판에서도 최고사령부를 바라보며 불사신의 용맹을 떨친 인민군전사들의 강의한 정신력은 세상을 놀래우는 승전신화들을 낳았습니다.

늘 생각하는바이지만 로병동지들을 뵈올 때마다 조국해방전쟁의 간고함과 처절함, 원쑤격멸의 치렬한 백병전이 그대로 생생히 느껴지고 오늘 우리가 전화의 용사들처럼 싸우고있는가를 재삼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대의 제일 엄청난 도전과 위험을 맞받아 불가항력의 강용한 정신적힘을 분출시킨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저절로 머리가 숙어집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후손들의 삶을 위하여 빛나는 공훈을 세웠지만 우리의 전승세대는 언제한번 피흘린 대가를 바란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를 가시고 페허가 된 나라를 복구해야 할 막중한 일감들을 또다시 어깨우에 기꺼이 걸머진것이 전승세대였습니다.

전선에서 돌아온 용사들도, 후방에서 굴함없이 싸운 사람들도 불행과 고통을 딛고 먼저 간 전우들의 부탁대로, 그들의 몫까지 열배, 스무배로 일을 더 많이, 더 빨리 하는것이 응당한 도리이고 의리이며 본분이라고 여기였습니다.

단순히 복구만 할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자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받들고 빈터우에 자주강국건설의 첫삽을 박은 전승세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면서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내달리였습니다.

허리띠를 졸새없이 간고분투하며 세월을 주름잡은 영예로운 건설자들에 의하여 영웅조선이 천리마조선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고 부국강병의 지름길인 경제국방병진의 력사적과제가 성과적으로 실현되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년대를 이어 본보기로 삼고있는 당중앙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혁명적대고조로 보위하는 훌륭한 투쟁전통과 하나는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는 고상한 집단주의기풍, 공산주의적인간관계도 이 위대한 혁명세대가 창조한것입니다.

전승세대의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이 있었기에 재더미우에서도 인민이 있고 령토가 있고 당과 정권이 있으면 얼마든지 새 생활을 건설하고 잘살수 있다는 주체의 철리가 빛나는 현실로 확증되였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년대들마다 우리의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은 포연탄우를 헤치며 피흘려 싸우던 전화의 그때처럼 살고있는가를 항상 자각하며 변함없는 복무의 길을 걸어왔으며 새세대들도 강직하고 견결하게 살며 투쟁하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모두가 더없이 존경하여마지 않고 감사해마지 않는 전승세대의 고결한 정신세계입니다.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정신을 이어받은것으로 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몇차례의 전쟁과 맞먹는 사회주의수호전의 간고한 시련을 극복하고 혁명앞에 나선 거창한 대업들을 승리적으로 이룩해올수 있었습니다.

정녕 영광스러운 우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예롭게 사수하고 대를 두고 이어갈 불멸의 영웅정신을 마련해주신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 조국건설자들이야말로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들이며 참다운 스승들입니다.

동지들!

우리 인민과 새세대들에게는 위대한 전승세대의 후손이라는 그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특별한 긍지와 자부가 있습니다.

전승세대 후손들의 영예로운 사명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창조된 위대한 승리전통과 영웅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선렬들이 지켜내고 일떠세운 이 나라를 더 강대하게 하고 끝없이 번영하게 하는것입니다.

성스러운 이 력사적사명과 본분을 똑똑히 자각한 세대는 절대로 쇠퇴하지도 와해되지도 않으며 용감하고 굳세게 전진하기마련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이 막아서고 아름찬 과업이 나설 때마다 우리보다 먼저, 지금보다 더 엄청난 도전과 과업을 감당해낸 혁명의 로세대, 전승세대를 생각하군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난과 애로는 전쟁상황에 못지 않은 시련의 고비로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전승세대가 가장 큰 국난에 직면하여 가장 큰 용기를 발휘하고 가장 큰 승리와 영예를 안아온것처럼 우리 세대도 그 훌륭한 전통을 이어 오늘의 어려운 고비를 보다 큰 새 승리로 바꿀것입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려정에 지금보다 더한 역경이 닥친다해도 우리는 절대로 멈춰서지 않을것이며 전승세대의 영웅정신을 계승하여 내세운 투쟁목표들을 향해 줄기차게 돌진할것입니다.

전화의 용사들이 아까운 생과 바꾼 이 땅, 로병동지들이 한생토록 애국의 성실한 자욱을 새겨온 이 강토를 반드시 전체 인민이 부럼없는 복락을 향유하는 부흥강국으로 꾸려나갈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당은 전승세대의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가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새세대들의 피와 살이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영양소로 되게 하자고 합니다.

오직 자기 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당결정을 목숨바쳐 받든 견결한 혁명정신, 자기 힘과 승리를 확신하고 조국앞에 닥친 생사존망의 위기를 맞받아 한몸을 서슴없이 내댄 결사의 희생정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복구와 건설에로 힘차게 나아간 불굴의 투쟁정신, 어려움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위해주며 사회주의 새 생활을 꾸린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이 오늘의 투쟁과 생활속에 살아 높뛰게 하겠습니다.

애국충정의 훌륭한 교과서인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혁혁한 전승기와 투쟁기들을 누구나 잊지 않도록 하고 전시가요들과 창조와 건설의 노래들이 일러와 초소마다에서 항상 울리도록 하며 당정책관철의 실천투쟁속에서 새 기적과 위훈들이 계속 창조되도록 하겠습니다.

로병동지들!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위업은 새로운 력동의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온 나라는 앙양한 기세로 끓어번지고있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은 변화되는 그 어떤 정세나 위협에도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으며 영웅적인 전투정신과 고상한 정치도덕적풍모로 자기의 위력을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지면서 국가방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전초선들에 억척같이 서있습니다.

수천수만의 새세대 청년들도 전승세대의 훌륭한 정신과 기풍을 이어 당이 부르는 전선들에 용약 달려나가고있습니다.

전승세대가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은 굳건하며 우리 국가,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은 양양합니다.

로병동지들이 건강한 몸으로 앉아만 계셔도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무한한 힘이 되고 우리 혁명에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8돐에 즈음하여 우리의 귀중한 전쟁로병동지들과 전시공로자동지들에게 다시한번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모든분들께서 부디 건강장수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정신은 길이 빛날것이며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될것입니다.

위대한 전승 7.27 만세!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7.27.

제7차 전국로병대회 성대히 진행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시여

얼마전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한 재중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위업을 계승하신 지난 10년간 조국의 강산은 그야말로 몰라보게 전변되였다.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불리워온 조국이 인민들의 생활터전으로 보다 훌륭히 변모된 근저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깃들어있다.》

조국의 모습은 그 해외동포의 말을 증명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하다.

첫 대회

주체101(2012)년 4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그때로부터 한달후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가 열리였다.

이 대회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제일먼저 소집된것만 보아도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높은 뜻을 잘 알수 있다.

대회에 앞서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라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국토관리부문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총적방향, 총적과업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말그대로 나라의 전 령토를 포괄하는 대단히 폭넓고 거창하며 장기성을 띠는 전망적인 사업이다.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참가자들은 지난 기간 국토환경보호모범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오는 과정에 거둔 성과와 경험들을 진지하게 나누었다. 그리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남김없이 조직동원하여 로작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의도 다지였다.

력사적인 대회이후 전국적으로 국토관리사업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대중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뜨거운 호소

주체103(2014)년 11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찾으시였다.

당시 산림복구사업은 더는 미룰수 없는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있었다.

그날 양묘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자면 전후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산림복구전투의 승리를 위한 대강을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때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군군인들과도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과도 나무를 심으시며 전당, 전군, 전민을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에로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104(2015)년 한해에도 두차례나 인민군대에서 새로 꾸리고있는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인 산림복구사업은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사업인것만큼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자연과의 전쟁인 산림복구사업을 중요한 정책적, 전략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우선 양묘장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하였다. 때문에 양묘장은 단순히 나무모를 생산하여 보장하는 곳이 아니라 산림복구전투의 성패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122호양묘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21세기 양묘장,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킬뿐만아니라 도들에도 한해에 2 000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양묘장을 건설할데 대한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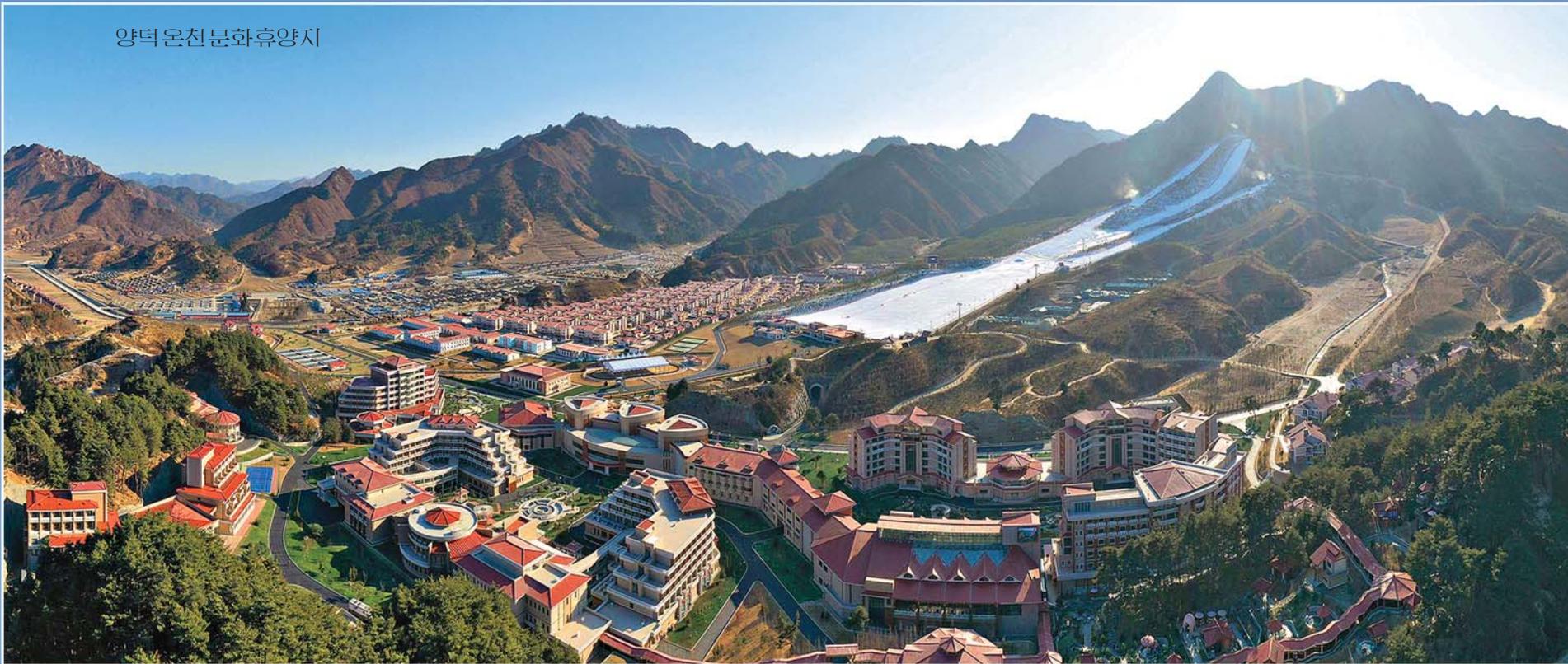
업을 제시하시였다.

그후 강원도양묘장을 비롯하여 각 도와 시, 군들에도 크고작은 양묘장들이 일떠섬으로써 조국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사회주의국가의 체모에 어울리게

최근년간에만도 평양시에 창전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가 일떠선데 이어 초고층, 고층, 다층살림집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조형화, 예술화, 록색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려명거리가 일떠섰다.

이 거리에 보금자리를 편 사람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적대세력들이 유엔을 내세워 조선에 대한 초강도제재를 선포하여 공화국의 경제를 질식시키고 인민생활을 어렵게 만들려고 책동하던 시기에 려명거리 건설을 발기하시고 몸소 거리이름도 달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많은 거리형성안들을 보아주시며 려명거리를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록색형거리로 건설하기 위해 태양빛과 지열을 비롯한 자연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기술들과 지붕 및 벽면록화기술 등 록색건축기술들을 광범히 받아들이도록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리고 몸소 여러차례 건설현장에 나오시여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도록 모든 대책도 취하여주시였다.

산간문화도시 삼지연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안으신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일신되고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중평남새온실농장을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대기념비적건축물들과 새 거리, 새 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게 되였다.

국토관리와 생태환경보호사업은 나라의 장래와 관련되는 전략적인 사업으로 큰걸음을 내디딜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지난 1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국토관리와 생태환경보호사업

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한 중대사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국토환경보호와 관련한 법규범과 세칙들을 바로 제정하고 엄격히 시행하는 문제, 치산치수사업에 힘을 넣어 자연재해를 미리막는 문제, 도로건설과 관리에 계속 큰 힘을 넣는 문제 등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국토를 보호하고 일신하는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조국인민들은 온 나라를 사회주의본태가 살아나고 사회주의향기가 넘쳐나는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시려는 그이의 뜻과 령도를 받들어 국토관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홍건도간석지 2단계와 룡매도간석지 3, 4구역건설이 결속되여 1만 3 000여정보에 달하는 새땅이 생겨나게 되였으며 날바다우에 솟아난 제방들에는 새로운 륜환선도로들도 형성되였다.

평양시에서는 대동강과 보통강의 유보도개작공사가 완공되고 곳곳에 유원지와 공원들이 생겨나 수도의 면모가 나날이 일신되고있다. 회창군, 성천군, 운산군과 같이 산이 많은 지역들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어가꾸고 있을뿐아니라 큰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 강하천정리를 잘하고있다.

청천강-평남관개자연흐름식물길, 황해남도물길 2단계공사가 완공되여 나라의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애국은 헌신이고 투신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애국의 호소따라 자기의 성실한 노력으로 조국산천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인민이 있어 조국의 국토와 생태환경은 더욱 변모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조선중앙통신

황해남도물길

룡매도간석지

지향되는 록색에네르기

오늘 세계적범위에서 에네르기소비량의 증가와 환경오염이 난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인적, 물적손실이 커가는데다가 많은 산업기지, 상업기지들이 형성되여 기업체들의 경영에 필요한 에네르기보장문제, 주민들의 생활환경보장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이 초래되고있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에서는 록색에네르기를 개발하여 이산화탄소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조국에서도 자연에네르기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평양시 려명거리에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가 도입되고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마을을 비롯하여 많은 살림집들마다에 태양빛전지판과 태양열을 리용한 물가열기들이 설치되였다.

평양시인민위원회에서는 자연에네르기와 전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기술자료들을 시안의 단위들에 보급하고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하고있는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고있다.

과학기술전당, 목란광명회사, 대성산샘물공장, 해방산호텔을 비롯하여 많은 공장, 기업소, 상업봉사망들이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경영활동에서 실리를 얻고있다.

이미 5년전 고효률태양빛전지판생산을 공업화한데 이어 생산공정의 무진화를 실현한 **김일성**종합대학 태양빛전지제작소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빛-전기변환률이 보다 높은 새로운 태양빛전지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록색에네르기를 개발생산하기 위한 열의는 지방의 많은 단위들에서도 급속히 높아가고있다.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고있다.

지난 기간 태양빛전지로 려객선을 만든 남포시에서는 다양한 자연에네르기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남포수산대학, 항구구역 계승소학교를 비롯한 교육단위들에서도 후원단체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건물의 지붕과 벽체 등에 태양빛전지판을 설치하여 생산한 전기를 효과있게 리용하고있다.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는것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보편적인 현실이다.

오래전부터 수력을 리용하는 계단식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한 자강도에서는 지난해 10월 능력이 큰 흥주청년4호발전소를 준공한데 이어 동신3호발전소와 고풍3호발전소를 련이어 일떠세워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에네르기를 보다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해상풍력을 리용하여 살림집에 필요한 전기를 보장하는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 남강2동의 주민들, 흐르는 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사용할수 있는 수차식물뽐프를 제작하여 관수를 보장하는 황해북도 신평군산림경영소의 종업원들, 지하수를 리용하여 랭난방체계를 세우는데 필요한 각이한 능력의 지열설비들을 계렬생산하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

활기를 띠고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은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경영활동에 필요한 깨끗한 에네르기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사기자 홍정혁

생태환경보호와 미래

나라의 생태환경은 인민들의 삶이 뿌리내리고 꽃펴나야 할 자연환경, 생활환경이며 이를 보호하는 사업은 인민을 위하여,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중요한 문제이다.

조국에서는 국토관리와 생태환경보호사업을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한 중대사, 나라의 장래와 관련되는 전략적인 사업으로 보고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여러 전원회의들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토의되고 과업들이 명시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본사기자 엄향심은 국토환경보호성 처장 김광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병없이 오래 살려는 인간의 념원을 실현하자면 뭐니뭐니해도 보건사업을 발전시켜야 하지만 이와 함께 중시해야 할 문제가 생태환경보호사업이라고 본다.

처장: 그렇다. 병없이 오래 살려는 인간의 념원을 실현하자면 보건사업과 함께 사람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 깨끗한 자연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아무리 보건부문이 발전되였다고 해도 공해로 자연환경이 오염되면 여러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대기와 물의 오염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는것과 같이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에 응당한 주목을 돌릴 때 사람들이 생존과 활동의 근본원천인 맑은 공기와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시며 무병무탈할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현상과 자연재해는 생태환경보호의 절박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기자: 생태환경보호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처장: 생태환경보호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는 우선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산림은 공기정화기능, 물저장기능, 토지의 침식방지기능 등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산림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전군중적인 나무심기운동을 일관하게 밀고나가면서 산불과 병충해, 사태, 토양침식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유용동식물자원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물오염을 막고 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산업폐수나 생활오수에 의한 강하천, 호수, 바다의 오염과 퇴적을 철저히 막으며 사방야계공사를 잘하고 강하천과 바다에 흙탕물이 흘러들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산업폐수의 정화대책을 세우고 도시하부구조를 정비, 보강하며 오수정화장들의 처리능력을 높여 생활오수를 철저히 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하천정리를 질적으로 진행하여 토사류출과 하천의 퇴적을 막는것과 함께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하천이 자기의 생태적기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생태도시건설의 세계적추세에 맞게 지붕록화, 립체록화기술을 받아들여 도시록지면적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낼 때에도 자연지세를 가능한껏 리용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에네르기를 비롯한 자연에네르기의 리용률과 도시생활오수 및 오물의 재자원화률을 높이고 록색건축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유기농법과 물절약형농법 등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지력을 높이고 물을 절약하며 생물농약사용비중을 높여 토양오염을 줄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생물권보호구를 비롯한 보호구들을 늘여 생물다양성을 증대시키고 보호관리를 과학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적추세에 맞게 록색기술을 적극 연구도입하여 생태계의 자연정화능력을 최대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기자: 올해 어떤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해나가고있는가.

처장: 생태환경보호사업을 꾸준히 밀고나가기 위한 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고 부문별과업들을 세분화하여 밀고나가고있다.

올해에만 놓고보더라도 환경보호기준을 과학적으로 다시 정하고 환경보호와 관련한 여러 법들을 개정 및 제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있으며 전국적으로 생태환경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있다.

환경개선시범지역을 설정하는것과 함께 생물권보호구를 비롯한 자연보호구들을 다시 조사하고 그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여기에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와 동물학연구소, 생물다양성연구소의 연구사들을 망라시켜 진행해나가고있다.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하고 개선하는것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다.

누구나 생태환경보호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조국산천은 더욱 아름다와지고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게 될것이다.

기자: 이야기를 듣고보니 조국의 국토와 생태환경이 나날이 변모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감사하다.

* * *

록색형의 려명거리

평양의 려명거리를 돌아본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록색형거리》라고 평하고있다.

음이온발생수지벽지와 칠감으로 내부를 꾸린 살림집들에는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한 조명 및 랭난방체계가 도입되였고 70층짜리 살림집을 비롯한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의 기단층에는 사철푸른 나무들과 꽃관목들이 심어져있다. 그런가 하면 유치원, 탁아소를 비롯한 많은 건물들의 지붕에는 수경재배온실이 설치되여 갖가지 남새들이 재배되고있다.

올해에는 건물들과 도로의 주변이 더욱 록색화되여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평양시 대성구역 려명거리록화사업소에서는 공원과 휴식터, 경사지와 도로연선 등에 더 많은 지피식물을 심고 가꾸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지피식물은 비물에 의한 토양의 침식을 막고 대기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거리의 소음을 낮춘다. 공기속의 각종 유해가스를 흡수하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천연《먼지흡수기》로 불리우기도 한다.

사업소의 종업원들은 살림집주변에 지피식물들을 많이 심어 새로운 록지를 조성함으로써 거리의 풍치를 개선하였다.

평양시 대성구역도로시설관리소의 려명작업반원들은 적은 로력으로 넓은 도로구간을 관리해야 하는 바쁜 속에서도 거리의 록화사업을 적극 도와나서고있다.

작업반에서는 지난 몇달사이에만도 도로의 사귐점과 주변의 많은 곳들에 화단을 조성하고 누운측백나무, 향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들을 심어 거리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갖가지 색갈의 꽃들로 도로의 환경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이들을 보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정겨운 인사를 보내고있다.

더 좋은 생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이러한 모습은 려명거리의 곳곳에서 찾아볼수 있다.

많은 기관, 가정들에서는 이미 건물마다에 조성된 지붕록화와 벽면록화의 실용성이 더 크게 발휘되도록 영양관리, 비배관리를 잘하고있다.

올해 정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원림설계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공원과 유원지들을 아름답게 꾸리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화초, 지피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도시의 면모를 일신시킬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누구나 거리와 마을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생태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신록이 짙어가는 이해 여름 려명거리의 운치는 이채롭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부부산림감독원

평안남도 북창군 회안지구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산마다에 숲을 이룬 창성이깔나무와 골짜기마다 펼쳐진 산과일나무들을 목격하게 된다.

이 지구가 산림이 울창하고 갖가지 산과일열매들이 주렁져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되게 된데는 북창군산림경영소의 리정혁, 정향희부부산림감독원의 피타는 노력이 깃들어있다.

리정혁이 회안지구의 산림감독원으로 된것은 주체98(2009)년이였다. 회안지구의 산들은 부식층이 적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 지역이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 지역에 누구도 선뜻 나무를 심으려고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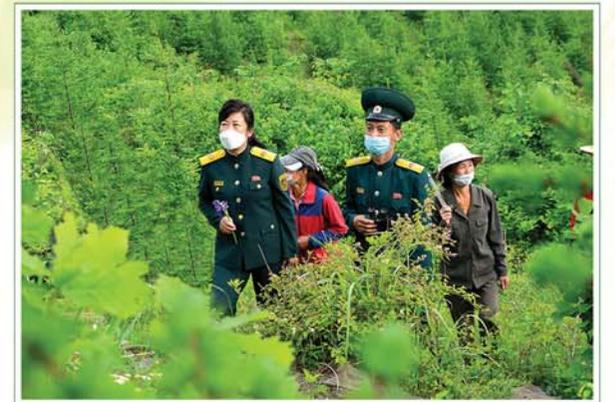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을 피운다고 이 척박한 땅에도 정성을 바쳐 푸른 숲이 설레이게 하자.)

이렇게 속다짐을 한 그는 우선 부식토를 마련하는데 힘을 넣었다. 추운 겨울에 산골짜기의 여기저기를 다니며 부식토를 찾아내느라 끼니를 번지는 때도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안해인 정향희는 꼭 이렇게 일해야 하는가고 묻군하였다.

《우리가 땀흘리는것만큼 땅은 비옥해지고 숲은 더 푸르게 될것이요. 이 회안지구에 푸른 숲이 설레일 그날을 그려보니 힘든줄 모르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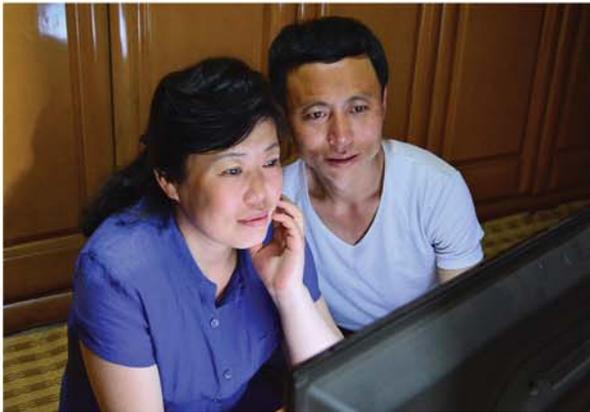
안해도 남편을 도와나섰다. 시간이 가고 날이 바뀌면서 산기슭마다에는 많은 부식토무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겨우내 쌓아두었던 부식토무지에서는 봄을 맞으며 김이 물물 피여올랐다. 그들은 구뎅이들마다에 부식토를 채워놓고 양묘장에서 가져온 나무모들을 심어나갔다. 그해에 떡돌같은 아들도 태여났다. 그들은 산들에 나무가 무성해지기를 바라며 자식의 이름을 무성이라고 지었다.

리정혁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하여 숲사이양묘장들을 꾸리였다. 숲사이에 양묘장을 꾸리면 대기습도와 토양습도가 항상 높기때문에 물대기와 물빼기 등 평지대나무모밭에서 진행하는 작업공정이 필요없었고 나무모가 숲속의 환경에 잘 적응되여 사름률도 높았다.

성실한 농사군에게 나쁜 땅이 없다는 말이 있는것처럼 그들이 애써 가꾼 땅에서 어린 나무모

들이 자라기 시작하였다. 애어린 모인지라 더 많은 품을 들여야 하였다. 여름철의 장마, 겨울의 맵짠 추위는 물론 산짐승과 날짐승들에 의한 피해에서 나무모를 지켜나갔다.

장마로 애어린 모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돌각담을 쌓고 물길도 깊이 쨌으며 날짐승들을 막기 위하여 위장물도 만들어 설치하였다.

산들을 푸르게 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도와나섰다.

그때로부터 회안지구에는 여러개의 숲사이 양묘장들이 생겨났고 숲이 무성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년간 여러차례 폭우가 들이닥쳤을 때에도 회안지구는 산림의 덕을 보았다.

지금도 정혁은 수십정보의 창성이깔나무숲을 보면서 저 나무들이 우리 무성이와 나이가 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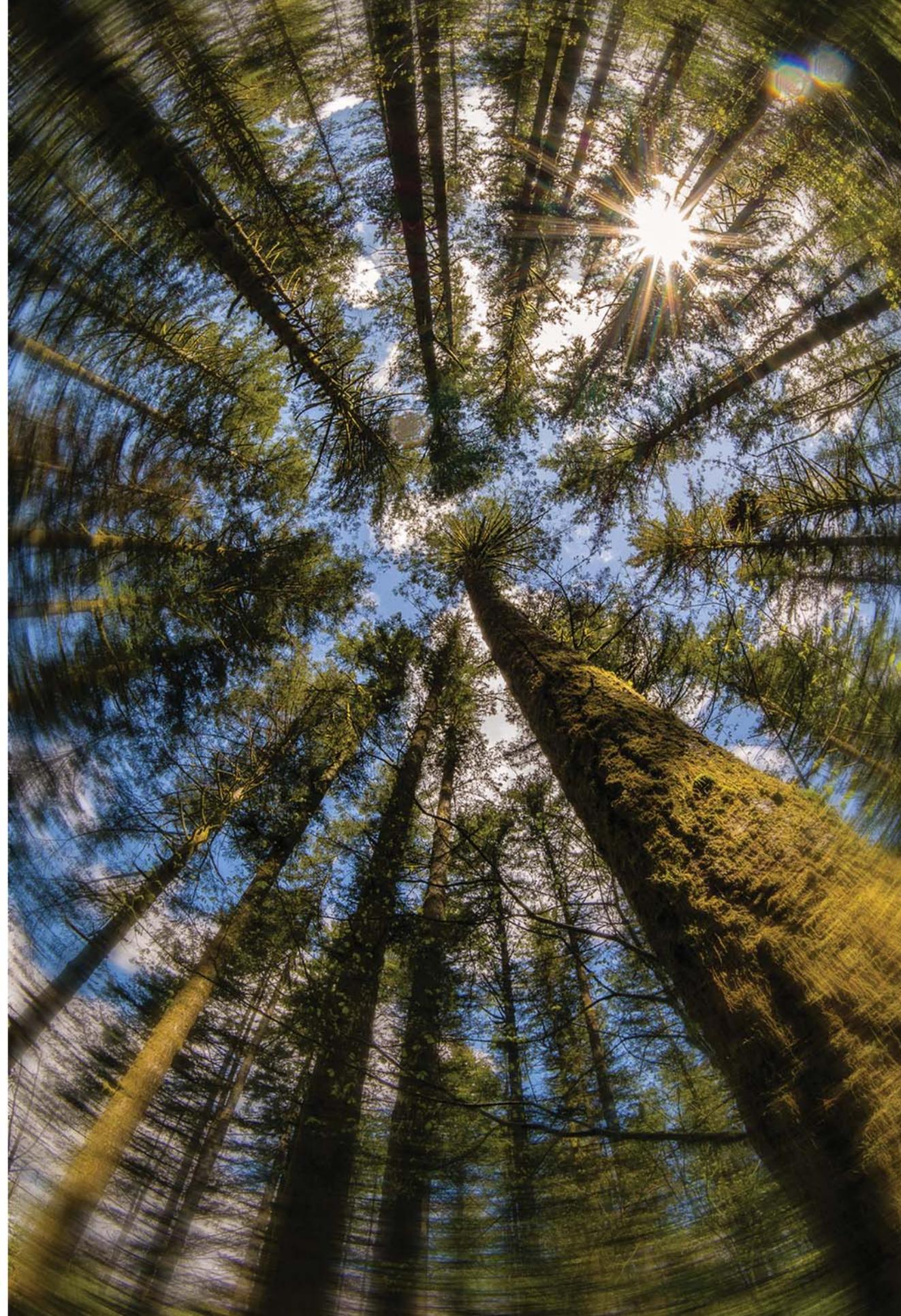
주체106(2017)년 회안지구의 동발나무림이 완성되였을 때 정혁의 안해인 정향희가 산림감독원으로 임명되였다.

산림감독원복을 입은 부부는 1 000여정보에 달하는 담당림의 40여리에 달하는 순회길을 걸으면서 앞으로의 사업을 구상해나갔다.

몇년전부터 그들은 양묘장에 많은 산과일나무모들과 약초들을 심었다. 소나무에 접한 잣나무에서는 지난해부터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였다.

10여년전에 고생을 사서 한다고 하던 마을사람들은 다양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모르는 땀을 바쳐가고있는 그들을 두고 애국자산림감독원부부라고 부르고있다.

산림조성과 관련한 과학기술학습을 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라평렬

인민의 힘을 믿고

주체34(1945)년 8월 15일은 조국해방의 날이다.

조국해방, 이것은 조선을 강점한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성스러운 대전, 전민항쟁의 불길속에 마련된 력사적위업이였다.

돌이켜보면 조선인민의 혁명적무장력인 반일인민유격대가 일본제국주의와의 전면대결전을 선포하였을 때 세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일찌기 그 어느 전쟁력사에서도 볼수 없었던 쌍방의 력량관계때문이였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한다는것은 신흥군사강국이였던 일본의 군사력을 타승하고 《명치유신》후 신흥일본이 근 70년동안 이룩해놓은 모든 인적, 물적, 재정적력량과의 소모전에서 승리자가 된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외부적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적에게 도전한다는것은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전쟁의 승리를 확신하시였다. 인민의 힘, 이것이 그이께서 간주하신 승리의 결정적담보였다.

일찌기 조선혁명의 진로를 명시하시면서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하여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주체25(1936)년 5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의 창립을 선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혜를 바치며 2천만 민중이 일심동체가 되여 반일조국광복전선에 총동원된다면 일제놈들은 괴멸될것이며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은 이룩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민족의 총동원으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할것을 호소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발표하시였다.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은 자기 나라 인민이며 원쑤격멸의 총을 들고 단결하여 일떠선 인민의 힘은 그 어떤 침략자도 당할수 없다는 그이의 신념과 의지는 그대로 전민항쟁의 거세찬 불길이 되여 온 나라에 타번져갔다.

그이께서는 국내외도처에 조국광복회조직들과 항쟁조직들이 꾸려지는데 맞게 주체26(1937)년 9월 전체 조선인민이 신심을 잃지 않고 반일투쟁을 강화해나갈데 대한 력사적인 호소문을 발표하시였다.

그이의 뜻에 호응하여 인민대중의 반일항전기운은 전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더욱 거세차게 타올랐다.

평양에서 조직된 조국해방단, 서울에서 조직되여 국내각지와 일본에까지 그 세력을 확대한 **김일성**대를 비롯하여 각이한 명칭의 전민항쟁조직들이 전국적판도에서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부산과 시모노세끼를 오가는 관부련락선 선실의 천정에 《조선독립대장 **김일성**》이라는 글발이 나타나고 서울남대문에 《근일 **김일성**대장 조국개선》이라는 글이 나붙은것은 그대로 전민항쟁에 떨쳐나선 온 나라의 민심이였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 온 겨레를 항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기 위해 항일의 20성상 많은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모진 시련과 고난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그이께서 넘으신 사선의 혈로들은 이루 헤아릴수가 없다.

주체34(1945)년 6월 그이께서는 드디여 간백산밀영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을 하달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중추적력량인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과 전국각지에 조직된 무장조직들 그리고 조국광복회조직을 비롯한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으로 반일항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것, 이것이 최후공격작전에 일관된 그이의 기본전략적의도였다.

그로부터 두달후인 8월 9일 그이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에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전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그이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물론 각계각층 인민들은 멸적의 기세 안고 산악같이 일떠섰다.

공장, 탄광, 어촌 등 전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무장조직들이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합세한 전민항쟁의 불길은 일제의 철통같은 방어진과 통치체계를 불과 한주일도 못되는 사이에 허물어버리고 끝끝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며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고 쓰시였다.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고 강물이 흘러 바다에 합쳐짐은 자연의 리치이다. 허나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전진운동은 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일의 나날 2천만 조선동포를 조국해방성전에로 불러일으킨 전민항쟁의 그 불길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며 오늘도 겨레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준다.

본사기자

한홉의 미시가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였던 혁명투사들이 쓴 회상기들을 묶은 책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에서 《한홉의 미시가루》의 내용을 소개한다.

주체27(1938)년 겨울 고난의 행군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가지가지의 잊혀지지 않는 일들을 회상하여 추억에 잠기게 된다. 그중에서 지금도 나의 심금을 울리는것은 한홉의 미시가루에 대한 이야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국경일대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이해 12월초에 몽강을 떠나 장백지구로 향하였다.

허리까지 빠지는 밀림속의 생눈길을 헤치면서 수천리길을 돌파해야 했고 달라붙은 적과는 매일과 같이 전투가 벌어졌다.

당시 부대의 식량사정은 점점 위급하게 되였다. 대원들은 허기증이 나서 쓰러졌다가도 눈을 움켜먹고는 다시 일어나 걷군 하였다.

당시 사령부에는 전령병으로서 김봉석, 지봉손동무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

우리 전령병들은 자신이 굶는것은 둘째치고 사령관동지께 식사를 보장해드리지 못하는것이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다.

행군도중의 어느날 아침이였다. 잠시 휴식하는 때에 우리는 배낭을 털어 모은 미시가루를 사령관동지께 권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를 둘러보시다가 전령병들중에서 나이어린 지봉손동무를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그 미시가루를 그에게 주시였다. 봉손동무는 그 미시가루를 먹지 않고 나에게 주었다. 결국 한홉의 미시가루는 다시 나의 배낭속에 들어가게 되였다.

어느날 하루종일 행군한 우리는 저녁때가 되여 숙영하게 되였다. 이날도 식량이 없어 모두 눈을 끓여마시였다. 우리는 한홉의 미시가루를 적당히 갈라서 다음끼니분을 보관하고 사령관동지앞에 내놓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침묵하신채 우리들의 얼굴을 바라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마지막미시가루를 자신에게만 권한다는것을 짐작하고계시는것 같았다.

《동무들은 몇끼를 굶었소?》라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물으시였다.

《사령관동지! 우린 먼저 먹었습니다. 사령관동지의 몫만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그러니 나 혼자만 먹으란 말이지… 더는 없소?》라고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물으시였다.

《더 없습니다.》라고 우리들은 말씀드리였다.

《자! 그럼 동무들의 배낭을 가져와보오.》라고 하시며 사령관동지께서는 손수 우리들의 배낭을 일일이 들여다보시였다. 나는 할수없이 배낭속깊이 싸두었던 미시가루를 내놓고야말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나를 보시며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신문지를 펴고 거기에 미시가루를 쏟아놓으시고 우리들에게 그옆에 둘러앉으라고 하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주저하는 우리들의 손목을 끌어당겨 앉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것을 한말쯤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먹으면 배가 부를거요. 어서 받으라구.》라고 하시면서 종이숟가락을 만들어 그 미시가루를 나누기 시작하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자신의 몫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우리들에게만 놓으시였다. 우리들은 자기의 몫으로 받은 미시가루를 도로 그이께 덜어놓았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우리들이 덜어드린것을 다시금 나누어주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들이 미시가루를 물에 타는것을 보시고서야 미시가루를 물에 타시였다.

그 한홉의 미시가루는 고귀한 혁명의 량식이였으며 조국을 위한 자기희생적인 복무의 정신과 대원들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시는 그이의 고귀한 혁명적자양분이였다.

그후 여러 방향에서 활동하던 아군부대는 다시 집결하여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며 춘기공세로 넘어갔다.

항일혁명투사 백학림

일 화

위민헌신의 나날에

합격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 릉라인민유원지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곱등어관건설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특색있게 일떠서고있는 곱등어관전경을 바라보시다가 멋있다고 만족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아직 공사중이여서 먼지가 이는 어지러운 현장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곱등어관 중앙홀로 들어가시여 대형전시수조를 보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기쁘신 안색으로 곱등어관의 중앙홀에 여러가지 물고기들을 보여줄수 있게 유리로 만든 수조가 좋다고, 중앙홀에 여러가지 물고기들을 보여줄수 있게 만들어놓은 수조는 합격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홀 오른쪽의 복도를 따라 걸으시다가 문득 여기서 바다물퇴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책임일군이 올리는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그 처리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바다물퇴수를 대동강에 그냥 흘러보내면 대동강의 생태환경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과학자들과 토론하여 대동강의 생태환경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바다물퇴수를 대동강물에 희석시켜 릉라도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내게 하였으면 잘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바다물퇴수체계에 대한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일군들은 생각하였다.

그이의 높은 요구성에 합격될수 있는 기준, 그것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단 1%의 피해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것이였다.

자금을 아끼지 말라!

주체101(2012)년 3월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을 부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문수지구에 야외물놀이장과 함께 실내물놀이장도 꾸려놓아 인민들이 사철 물놀이를 할수 있게 해주자고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나는 문수지구에 인민을 위한 현대적인 문수물놀이장을 마음먹고 건설할 결심이다, 문수지구에 엘도라도식물놀이장을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

그이께서는 그 위치를 확정해주시면서 물놀이장을 종합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일군은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즉시 물놀이장건설을 위한 설계작성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정작 설계를 하면서 타산해보니 자금이 너무 엄청나게 드는것이였다.

자금이 너무 많이 들것 같다는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엘도라도식물놀이장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식당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시설들을 더 배치하자면 자금이 더 많이 들수 있다고, 하지만 인민을 위한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시면서 자금에 대해서는 관계하지 말고 설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그이의 숭고한 뜻에 따라 세계적수준의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건설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설계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본사기자

새 무장력의 탄생

(4호에서 계속)

류본초선생은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라가 망해가는걸 보고 참을수 없어 군복을 입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부하들을 데리고 싸우자니 속타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같이 가서 자기네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우리가 그 의견에 동의하고나서 우사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그는 량강구에 있던 우사령이 지금 안도성시에 들어가니 자기와 함께 가면 만날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선생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들도 조선사람부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놈들에 대한 원한이야 중국사람들보다 조선사람들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일부대에서는 왜 조선사람들이 항일을 못하게 자꾸 행패를 부리고 잡아죽입니까?》

《아, 그러게 말이야. 나는 그러지 말라고 자꾸 말리는데두 그 모양이거든. 공산당이 뭔지두 알지 못하는 무지막지한것들이. 공산당이 일제를 반대하는데 무엇이 나쁜가?》

류본초선생도 분개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제는 됐다, 살길이 나졌다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즉석에서 박훈을 소사하에 보내여 그곳 동무들에게 우리가 무사하다는것과 우사령부대의 참모장이 우리를 진심으로 후원해주었기때문에 유격대를 합법화할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였다.

우리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류본초선생을 따라 안도성시로 떠났다.

류본초에게는 전용군마가 한필 있었다. 우리가 선생에게 말을 타라고 권고하였으나 그는 《너희들이 걸어가는데 내가 말을 타구 가다니 될말이냐.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나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는 성시에 가닿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줄곧 도보행군을 하였다.

반일부대병사들은 거의 모두 팔에 완장을 두르고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같이 《부파스 부요민》이라는 글이 씌여져있었다. 그것은 죽기를 겁내지 말며 인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이다.

군졸들에게서 풍기는 험상궂은 인상과는 달리 그들이 내세우고있는 좌우명은 매우 건전하고 전투적이였다. 그 글이 나에게 우사령과의 해후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지도 모른다는 한가닥의 기대를 품게 하였다.

그날 우리는 류본초선생의 안내로 거침없이 우사령을 만날수 있었다. 그는 참모장의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우리를 례절있게 맞이하고 대우도 높은 급으로 잘해주었다. 우리모두가 중학교졸업생으로서 연설도 할줄알고 격문도 쓸줄 알고 무기도 다룰줄 아는 한창나이의 젊은이들이라는것을 내탐하고 자기네 곁에 붙잡아두고싶은 욕심이 나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내 짐작과 같이 우사령은 정말로 우리를 자기네 부대에 들어오라고 하였다. 나보고는 사령부선전대 대장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나의 속심은 자기 군대를 만들어 그것을 합법화하자는것인데 사령이 나더러 선전대 대장을 하라고 하니 나로서는 참으로 난처하였다. 내가 거절하면 우사령이 노염을 탈것은 분명한 일이였고 류본초선생도 립장이 딱해질수 있었다.

나는 일이 싱겁게 되기는 하였지만 우사령의 신임만 얻으면 운이 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령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우사령은 몹시 흡족해하였다. 그는 즉석에서 부하에게 임명장을 쓰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여 나는 사령부선전대장으로 되였다. 호진민은 부참모로 되고 진한장은 비서로 임명되였다. 소원밖의 황당한 결과였지만 우리로서는 어차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사닥다리였다. 사실 이 벼락감투가 유격대를 합법화하는데서 큰 은을 내였다.

나는 남의 집 뒤골방에 배겨있을 때의 우리 처지와 류본초선생의 알선으로 우사령부대의 심장부에 깊숙이 침투하게 된 오늘의 처지를 대비해보면서 마음속으로 인제는 됐다고 쾌재를 올리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에 부닥치게 되였다. 구국군이 연길에서 푸르허로 넘어오는 조선청년들을 70~80명이나 붙잡아서 성시로 끌어왔던것이다.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끌려온 청년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나는 류본초선생한테로 뛰여갔다.

《선생님, 이거 야단났습니다. 선생님네 사병들이 조선사람을 또 무리로 잡아왔습니다. 저 사람들속에 무슨 친일파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속에는 친일파가 없습니다. 왜놈의 앞잡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보고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류본초는 나의 말을 듣고나서 《성주, 네가 나가봐라. 우리는 너를 믿는다.》고 하였다.

《선생님, 나 혼자서는 곤난합니다. 선생님께서 같이 나가셔야 합니다. 원래 선생님은 연설을 잘하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연설을 하시면 왜놈의 개라도 다 감화될것입니다. 감화시켜서 왜놈들과 싸움시킬 생각을 해야지 거 친일파도 아닌데 자꾸 죽여서 뭘하겠습니까.》

《성주가 연설을 잘하는데 나까지 무슨 연설을 하겠나. 혼자 나가보라구.》

류본초선생은 손을 내저으면서 한사코 사양하였다.

선생의 말처럼 내가 학생시절에 연설을 많이 한것만은 사실이다. 길림, 돈화, 안도, 무송, 장춘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일제의 만주침략야망을 폭로하고 조중인민의 단결을 호소하는 연설을 많이 하였다. 류본초선생이 이 사실을 잘 알고있었다.

《선생님, 내가 조선말로 연설하면 선생님네 부대 어른들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내가 나쁜 선전이라도 하는가 하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류본초선생은 나의 말을 듣자 또 손을 내저으면서 어서 나가보라고 재촉하였다.

《성주가 기껏해서 공산당선전을 하겠는데 일없어. 내가 보증할테니 마음놓고 연설을 하라니까.》

이 선생이 벌써 내가 공산당에 관계하고있으며 공산주의운동을 하고있다는것도 알고있었다.

《공산당선전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야지요. 그것이 뭐 나쁘게 있습니까.》

서로 믿지 않는 처지이면 그때 내가 류본초선생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들이 나도 공산당이고 일제의 앞잡이라고 잡아제끼면 그만이지 딴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선생이 나와 각별히 친근한 관계에 있었던것만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와 류본초선생은 육문중학교시절부터 서로 격의없이 지냈다. 내가 길림에서 학교를 다닐 때 류선생은 따뜻한 심정으로 나를 극진히 돌보아주었다.

내가 류본초선생과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있을 때 우사령이 참모부로 들어왔다. 그는 붙잡혀온 청년들을 내다보며 또 공산당원들을 잡아온 모양이라고 하면서 공산당이 만주땅에다가 어느새 저렇게 많은 새끼를 쳤는지 모르겠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때 류본초선생이 얼른 나에게 선전대장이 빨리 나가서 저 사람들과 담화를 해보라, 조선사람들이 다 공산당일수 없고 또 공산당원이 다 일제의 앞잡이로 될수 없지 않는가고 하면서 끔뻑 눈짓을 해보이였다.

우사령은 참모장의 말을 듣고 대노하여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폭동을 일으키고 땅을 빼앗으려 하다가 일본놈들까지 끌어들였는데 그래두 공산당이 일본놈의 앞잡이가 아니야?》

조선사람들에 대한 우사령의 편견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맹목적이였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오해도 그만 못지 않게 집요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군력강화의 길에서

올해 8월 25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공화국의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61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조국인민은 군력강화의 길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로 시작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된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킨 년대기들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군대의 위력은 무장장비가 아니라 군인이 기본이며 군인의 사상이 기본이라는 독창적인 군사사상리론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어느해인가 그이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적과의 대결은 군사적힘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의 대결이다, 나는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도 사상론을 주장한다, 군사적타격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상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위력은 원자탄보다 더 강하다, 군사력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인민군대의 강화는 곧 정치사상적강화이며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데 무적필승의 담보가 있다는것을 밝혀준 지침이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참신하게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인민군대의 사상사업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해주신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찾고찾으시면서 군인들속에서 발휘되는 숭고한 혁명정신을 더욱 승화시켜나가도록 하시는 한편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등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준비시키는 한편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위력을 높이는것은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무력으로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휘성원들의 군사기술적자질과 지휘능력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으시는 한편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우리 식의 전법과 훈련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독창적인 실전훈련방침을 제시하신 그이께서는 여러 전술훈련장을 찾으시며 군인들의 훈련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주체97(2008)년 2월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여 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이라면 누구나 훈련장에 나가 부지런히 뛰고 부지런히 총을 쏘면서 싸움준비완성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또 흘려야 한다고, 땀배인 군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군인의 군복에서는 땀내가 나야 한다고, 군인들이 싸움마당에서 기묘한 전술을 써서 적을 소멸하는 지혜와 지능도 땀을 흘리는 훈련과정에 생겨나고 발전하게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하여 인민군대안에는 혁명적훈련기풍이 더욱 확립되게 되였으며 인민군대의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인민군대를 현대적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군령도에 의해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준비되였으며 조선인민군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은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였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무력건설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본사기자

방직공영웅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조국에서 영웅을 많이 배출한 공장으로 손꼽히고있다.

공장에서는 창립후 70여년간 17명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이 배출되였다. 그들은 모두 녀성들이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영웅이 되였는지?

첫 방직공영웅

고영숙, 그의 고향은 당시 남조선 전라남도 제주도 한림면 상대리이다.

해방전 그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일제에게 징용으로 끌려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고역에 시달리던 녀성이였다.

해방후 첫 방직공장으로 일떠선 평양방직공장(당시)에서 인민들이 입게 될 옷감을 제손으로 짜게 된 고영숙의 기쁨은 이를데 없었다.

그는 조선전쟁(1950. 6. 25-1953. 7. 27.)이 일어나자 안전한 후방지대로 옮겨진 공장에서 변함없이 전시생산을 보장하였다. 그 나날 고영숙은 근로하는 녀성들을 공장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나라의 시책이 너무도 고마워 하는 일에 성수가 났고 아무리 일해도 힘든줄을 몰랐다. 공장에서는 당시 한명의 직포공이 직기 4대를 맡아 돌리였다. 그러나 그는 8대를 담당하고 8자형기대순회방법을 창안도입함으로써 전시천생산계획수행에서 늘 앞자리에 섰다.

하여 그는 전쟁시기 공화국의 첫 방직공영웅이 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24살이였다.

기적을 창조한 방직공

주체57(1968)년 5월에 열린 제2차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는 다기대운동의 발기자인 한 녀성방직공도 참가하였다.

그는 남조선에서 일찌기 부모를 잃고 남의 집 아이보개로 살다가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 군인들의 등에 업혀 공화국의 품에 안긴 녀성이였다.

그는 제한된 시간내에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해 종전의 8자형보다 훨씬 우월한 ㄷ자형순회방법을 창안하여 혼자서 72대의 직기로 최고의 천생산실적을 올리였다. 하루 8시간동안에 그 많은 기대를 다루며 180~200리와 맞먹는 거리를 달린 그는 한해에만도 100만m의 천을 짜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후 80대의 직기를 다룬 리화순은 **김일성**훈장수훈자, 로력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공장의 책임일군으로 성장하였다.

빛나는 위훈담

전세대 방직공영웅들의 투쟁은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에 있어서 인생의 훌륭한 교과서로 되였다.

정방공 김봉례영웅은 전후시기 3개년계획을 7개월동안에 완수하였으며 그 과정에 450여명의 기능공을 양성하였다.

또한 그의 뒤를 이어 염정숙, 주병선, 승창숙, 박금옥, 리화순, 윤경희녀성들이 영웅으로 자라났다. 그들은 언제나 가사보다 국사를 먼저 생각하며 천생산에 심혼을 바친것으로 하여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사회주의대건설시기 배출된 강충실, 허금선, 김정순, 전옥화, 김순희, 리정순, 김복실, 리명옥영웅들도 다추다기대운동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천생산실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기존개념으로는 가늠할수도 없고 경제학적인 수자로써는 상상할수도 없는 눈부신 기적의 근저에는 집단주의정신이 놓여있었다.

이렇듯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를 높이 들고 동지와 집단, 조국을 위한 무한한 헌신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아름다운 삶을 찾은 참된 륜리와 인생관의 체현자들인 방직공영웅들을 후대들은 오늘도 존경하고있다.

류다른 생산경기의 주인공

주체66(1977)년 어느날 조국을 방문하였던 어느 한 나라의 녀성대표단 단장이 한가지 제기를 하였다.

두 나라 직포공들의 생산경기를 하자는것이였다. 리유는 그 나라에서 60대의 직기를 다루어 소문난 다기대직포공이 바로 자기네 대표단에 속해있기때문이였다. 경기에는 당시 80대의 직기를 다루고있던 전옥화가 나섰다. 하지만 키가 크고 몸집이 우람찬 그 나라 녀성은 기대앞에 서지도 못한채 1시간나마 전옥화의 천짜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는 《조선의 방직공들이 다르다. 우리도 영웅적인 그들을 따라배워야 한다.》라고 하며 연신 감탄하였다.

전옥화영웅은 주체98(2009)년 남녀평등권발포기념일인 7월 30일 공장에 찾아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였다.

올해 84살인 전옥화영웅은 로당익장하며 새 세대 방직공들을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고있다.

17번째 영웅의 감격

주체101(2012)년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17번째 방직공영웅이 배출되였다.

로력영웅의 이름은 문강순, 그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이도 어리고 너무도 평범한 내가 영웅이 될줄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저 전세대 방직공영웅들의 투쟁기풍으로 살며 일해왔을뿐이다.》

첫 방직공영웅 고영숙
주체42(1953)년

로력영웅 리화순
주체57(1968)년

신입공들속에 있는 로력영웅 문강순
주체101(2012)년 촬영

언제나 일밖에 모르는 문강순은 새 가정을 이루자마자 새로 건설된 창전거리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배정받았다.

문강순은 새 집에 보금자리를 폈다는 기쁨만도 어디에 비길데 없었다. 그런데 너무도 뜻밖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새 집에 모시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부모없이 자란 그에게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신혼부부의 행복을 바라며 축배를 부어주시였으며 아기가 태여나면 보여주라고 세계명작동화집도 선물로 안겨주시였다.

누구나 영웅이 될수 있다

- 공장의 18번째 영웅이 되고 싶다.

이것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신입방직공으로부터 로동년한이 오랜 방직공에 이르기까지 가슴에 품고있는 꿈이며 포부이다.

그들은 이 꿈과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있다.

다추다기대운동을 벌린 전세대들의 고귀한 투쟁정신을 체질화하고 서로 돕고 일하는 과정에 그들속에서는 해마다 년간, 2년분, 3년분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이 늘어나고있다.

올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직장들사이에 활발히 벌어진 증산경쟁속에 4월에 벌써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완수자들도 적지 않게 배출되였다.

그들중에는 가정부인들인 정은실, 김분임직포공들과 처녀들인 안봄란, 리일향, 심은미, 림현정, 신경심, 최명경, 전영복직포공들도 있으며 수리공들도 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하나와 같다.

《우리 새 세대들도 전세대 영웅들의 위훈을 거울로 삼아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꼭 영웅이 되겠다.》

그렇다. 자기자신의 안일보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일한다면 누구나 영웅이 될수 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로력영웅 전옥화(앞줄 가운데)와 새 세대 로력혁신자들

품질우선, 신용중시로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위치하고있는 고려명승건강식료제약공장에서 생산되는 전통적인 고려약들인 《안궁우황환》과 《삼향우황청심환》, 《뇌심사향》, 《록태고》 등은 20여년간의 생산과 국내외시장을 통하여 그 효과가 인정되였다.

공장에서는 전통적인 고려약들을 위주로 하면서 생물약품들과 건강식품들을 개발, 생산하고있다.

생산공정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체계를 세우고 원료채취로부터 모든 공정들에 대한 관리를 GMP기준에 맞게 진행하고있으며 의약품생산의 전 공정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인증을 받았다.

공장은 품질우선, 신용중시를 중요경영전략으로 세우고 국내외기업들과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지향하고있다.

아무리 특허제품이라고 하여도 그 질이 지속적으로 담보되지 못한다면 약품의 가치를 잃을뿐아니라 공장에 대한 구매자들의 신용을 잃게 된다고 이곳 지배인은 이야기하였다.

공장에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질담보와 가격안정화를 모든 경영활동의 첫자리에 놓고있다.

그것은 국내의 여러 전시회와 제9차 동북아시아투자박람회를 비롯한 수차의 국외박람회들에서 공장제품들이 언제나 구매자들의 환영을 받고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공장에서는 구렝이면역부활주사약과 세포활성주사약, 궁궁이혈전주사약, 금주사약 등 특허제품들의 질을 갱신하는 한편 연구개발을 다그쳐 효능높은 의약품의 가지수를 늘이고있다.

최근에 개발된 비피스피막알약은 장내세균총을 조절하여 소화기계통을 개선시켜주는 약으로서 사용자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이밖에도 천연기능성건강음료인 고려백화원액, 나노금화된 금수, 항산화작용이 높은 동충하초차, 비만과 리뇨작용에 특효인 봊나무차를 비롯하여 건강식품들의 가지수도 십여종에 달한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고려명승건강식료제약공장
(천연그대로…)

2020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들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 실장 교수 박사 임성진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 실장 박사 김광호

함흥수리동력대학 동력연구소 실장 채영철

농업연구원 벼연구소 실장 박사 문명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지난 3월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특출한 기여를 한 4명의 지식인들을 2020년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로 선정하였다.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김일성종합대학 교수 박사 임성진은 조국에서 비선형나노광학부문을 새롭게 개척하고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린 43살의 과학자이며 교육자이다.

비선형나노광학은 나노광학, 광학, 재료과학의 경계과학으로서 정보기술과 나노기술, 새 에네르기기술, 새 재료기술개발을 위한 원리적 및 방법론적기초를 주는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초점을 모으고있는 첨단연구분야이다.

그는 나노플라즈몬공명에서 빛과 나노재료의 호상작용특성을 해명하여 나라의 기초과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한것으로 하여 주체106(2017)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나라의 최고과학기술상인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았다.

20대에 물리학박사의 학위를 받은 그는 현재까지 여러 국제학술잡지들에 《현대비선형나노광학》을 비롯한 40여건의 론문을 발표하였으며 주체107(2018)년과 주체108(2019)년에 국제인명사전에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현재 임성진은 세계광학협회, 국제전기전자협회를 비롯한 국제학술협회들과 여러 국제학술잡지출판사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있다.

계산대수기하학분야의 권위자

2020년 최우수과학자, 기술자들속에는 국가과학원 박사 김광호도 있다.

그는 첨단경계학으로 지목되고있는 계산대수기하학분야의 여러 미해결문제들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명하였으며 나라의 정보보안을 강화하는데 핵심적역할을 하였다.

26살에 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은 그는 주체96(2007)년에 세계기록을 5배이상 갱신한 새로운 타원곡선공개열쇠암호연산의 고속화에 관한 론문을 발표하여 세계과학계를 놀래웠으며 론문은 인터네트홈페지(http://www.hyperelliptic.org/EFD)에 주체97(2008)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분야의 가장 앞선것으로 올라있다.

특히 주체108(2019)년에 투고한 론문《예비계산없는 타원곡선스칼라곱하기의 고속화》는 미국수리과학연구소(AIMS)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잡지 《통신수학진전》(AMC)의 2019년-2020년 최우수론문으로 평가되였다.

20여건의 그의 연구결과들은 국제학술대회보고집들과 해당 전문분야의 국제학술잡지들, 홈페지들에서 380여회에 걸쳐 《김-김 점두배공식》, 《김-네그레자리표》 등의 학명으로 인용서술되고있다.

그는 주체111(2022)년에 진행되는 유한체산수에 관한 제9차 국제학술토론회(WAIFI 2022)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확정되였다.

수력발전효률을 높인 과학자

함흥수리동력대학 동력연구소 실장 채영철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선진수준의 X형수차날개를 연구완성하고 전국의 여러 수력발전소들에 확대도입하여 전력생산을 늘이는데 기여한 과학자이다.

그는 종전의 수차날개들의 기술적제한성을 찾아내여 수차의 효률을 높이고 진동과 공동현상을 훨씬 줄일수 있는 새형의 수차날개설계방법을 완성하였다.

수차날개생산공정을 확립한 그는 장진강발전소, 허천강발전소를 비롯한 전국의 대규모 및 중소형발전소의 수십대 혼류타빈들을 새형의 수차로 교체함으로써 순시로 2만 7 000여㎾의 전력을 증산할수 있게 하였으며 그 운영의 안정성도 높이였다.

그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력발전소들의 수차의 효률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사업에 심혼을 바쳐가고있다.

알곡증수를 안아온 과학자

농업연구원 박사 문명철은 조국의 기상기후조건과 지력상태에 맞는 벼강화재배방법을 연구완성하여 나라의 알곡증산에 이바지하고있는 공로있는 과학자이다.

벼강화재배방법은 많은 종자와 로력, 물을 절약하면서도 다수확을 내는 방법인것으로 하여 로력절약형, 물절약형, 자원절약형농법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되고있다.

이미 40여개의 나라들에서 2000년대초부터 시작된 이 방법은 지력이 좋고 온열자원이 풍부한 열대, 아열대지대의 조건에 알맞게 적용되여왔다.

그러나 기후와 지대적특성이 그와는 다른 국내에서 이 방법을 도입하자면 많은 난점들을 해결하여야 하였다.

그는 20여년간 수십차례의 포전시험을 통하여 핵심기술인 조기물말리우기기술을 비롯하여 벼품종선택, 벼모기르기기술, 벼모내기기술, 비료주기기술 등 우월한 벼강화재배방법을 완성하였다.

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종전에 비해 정보당 1.5~2t이상의 소출을 더 내는 이 방법은 현재 전국의 백수십개 협동농장들에 도입되여 실효를 거두고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벼강화재배방법이 더 많은 면적에 확대도입되면 국내에서 식량생산을 증대시키고 지역적인 식량안정성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큰 역할을 놀것이라고 평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청년들의 탄원열풍

사회주의농촌과 인민경제의 주요전구들로 탄원해가고있는 청년들

오늘 조국에서는 청년들의 탄원소식이 련일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전해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이후 지금까지 사회주의농촌과 금속, 석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주요전구들로 진출한 남녀청년들은 전국적으로 수천명에 이르고있다.

제일먼저 남포시안의 140여명의 청년들이 농촌으로 진출한데 이어 황해남도안의 수백명 청년들이 농촌, 탄광, 광산들에 탄원해나섰다.

평안북도와 황해북도, 자강도, 강원도, 량강도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중요공장, 기업소와 사회주의농촌으로 련이어 달려나가고있다.

석탄생산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결심밑에 탄광으로 달려나간 청년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애국청년의 본분을 다할 남다른 각오를 안고 협동벌에 자기 삶의 뿌리를 내린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학교가 아니라 섬분교와 산골마을학교들로 찾아가는 청년들…

이들은 경력도, 직업도, 희망과 포부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조국이 절실히 요구하는 곳에서 청춘의 리상을 꽃피워가려는 지향과 풍모는 하나와 같다.

경원군청년동맹위원회에서 사업하던 황명복, 장진군청년동맹위원회 일군이였던 김혁, 평안북도청년동맹위원회 김영민, 맹산군청년동맹위원회 신금철, 형제산구역 신간고급중학교 소년단지도원 송금영을 비롯한 각급 청년동맹일군들은 남포시 140여명 청년들의 농촌진출소식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아안고 자기 지방 농장의 청년분조로 탄원하였다.

탄원자들속에는 잘못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인생의 새 출발을 결심한 청년들도 있다. 송림시의 어느 한 청년동맹원은 어제날 떳떳치 못했던 과거를 용광로의 쇠물로 깨끗이 씻겠다고 하면서 철강재생산으로 당을 받들어나갈 결의를 안고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탄원하였다.

조국에서 청년들의 탄원열풍은 전세대 청년들이 발휘한 고귀한 전통의 계승이다.

돌이켜보면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년대기마다 청년들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청춘의 힘과 기상을 과시하였다.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던 전후 빈터우에서 청년들은 복구건설의 돌격로를 열어나갔으며 해주-하성사이 넓은철길건설장과 송남청년탄광, 북부철길건설장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서 청춘의 자서전을 써나갔다.

류례없이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청년들은 청년영웅도로, 광명성제염소와 같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다.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극복해야 하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순수 청년들의 힘으로 일떠세운것을 비롯하여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하여 위훈을 새겨가는것은 오늘 조국땅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다.

자신보다 먼저 조국과 인민을 알고 그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것을 청춘의 멋으로 여기고 그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청년들의 강렬한 지향과 풍모, 이것은 청년중시를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는 사회주의조국에서만 발현될수 있는 자랑스러운 기풍이다.

지금 이 시각도 전국도처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로 탄원하는 명단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달라는 청년들의 청원은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

하나같이 미덕과 미풍의 선구자가 되여 온 나라에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고있는 청년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조국은 밝은 래일을 확신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조선중앙통신

수 기

백두청춘시절을 돌이켜볼 때마다

최근 각지의 수많은 청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진하여 진출하고있다. 탄원열풍이 전국각지에서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정말 이 땅의 장한 아들딸들이다.

그들을 볼 때마다 나는 10여년전 우리 청년들을 정신육체적으로 키워준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발전소언제를 쌓아가던 그 나날들이 어제런듯 떠오른다.

당시 백두대지에 일떠서는 수력발전소건설을 청년들이 통채로 맡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청년들이 너도나도 그곳으로 탄원해나갔다. 파견장을 받아안은 남녀청년탄원자들속에는 함경남도 함흥시의 자그마한 기계공장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던 19살의 나도 있었다.

막상 건설현장에 서니 두려움이 없지 않았다. 도시에서 나서 자라 아직 한번도 부모의 곁을 멀리 떠나본적 없었고 삽자루조차 변변히 잡아보지도 못했던 나였다. 눈에 익고 손에 설다고 선반이나 돌리던 내가 발전소건설장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은 힘에 부치였다.

그리고 발전소가 건설되고있는 량강도 백암군 천수리는 이름 그대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여서 작업조건이 매우 불리하였다.

하지만 나는 먼 후날 자서전에 백두대지에서 흘러간 청춘시절을 자랑스럽게 새겨넣으리라 결심하고 이악하게 일하였다. 그러한 나를 동무들은 더욱 위해주고 아껴주었다. 이렇게 동무들과 서로서로 도와가며 생활하니 성수가 났다. 나는 매일 하루일을 마친 후 숙소에 돌아와서는 동무들의 작업복을 남먼저 빨아놓기도 하였고 좋은 음식이 생기면 그들의 밥그릇에 먼저 얹어주기도 했다. 비록 일은 힘들었지만 서로가 위해주니 힘이 생기고 긍지와 보람도 배가해졌다.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청년들이 발전소를 완공하였다는 소식을 기다리고계실것이라고 생각하니 힘과 열정이 솟구쳤다. 그 힘과 열정을 안고 우리는 가장 어려운 작업조건과 횡포한 자연환경도 이겨내며 한치한치 언제를 쌓아올렸다.

이렇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은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더 굳게 단결되였으며 시대정신을 창조하였다.

준공의 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저 높이 쌓인 언제는 우리 청년전위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심의 루적이며 1호발전소언제의 높이는 영웅청년들을 가지고있는 우리 조국, 청년강국의 존엄의 높이라고 하시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기슭에서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우리 청년들을 더없이 기특하고 대견하게 여기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어버이사랑을 그대로 안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백두의 청춘들을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시대의 영웅들로 영광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시였다.

그후 조선청년으로서 응당 할 일을 한 나에게 뜻밖에도 공화국공민의 최고영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가 수여되였다.

내가 남보다 특출하여 영웅이 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자로, 역군으로 내세워주고 떠밀어주며 저 하늘의 별을 따다 가슴에 달아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믿음이 있었기에 나와 같이 25살밖에 안되는 평범한 처녀도 영웅이 될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부하고있다.

나는 영원한 백두청춘이다.

해가 가고 세월이 흘러도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슬기와 용맹, 무비의 담력을 안겨준 백두청춘시절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살리라는 마음다짐을 굳히게 된다.

그리고 오늘 조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주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그들이 자력갱생대진군에서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해나가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로력영웅 리련화

해외동포조직들이 추모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해외동포들속에서 그이를 경모하는 다채로운 모임들이 진행되였다.

7월 8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에서 다채로운 모임들을 가지였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최수봉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와 중남지구협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일군들과 성원들, 심양시 공민들은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과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영상작품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심양시에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모임이 진행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심양시 공민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최수봉 제1부의장이 쓴 《그리움의 대하가 굽이치는 7월》이라는 제목의 글이 랑독되였다.

그는 글에서 그리움의 대하가 굽이치는 7월 우리 해외동포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태양상을 우러르며 그이의 고귀한 한생과 불멸의 업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해외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하해같은 은정을 영원히 잊을수 없다고 피력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건국의 어버이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밝힌 항로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는 조국인민들의 힘찬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조국의 륭성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으며 이어 영화감상회가 있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에서도 모임이 있었다.

7월 5일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가 모임을 열었다.

로씨야고통련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칠성 로씨야고통련 위원장의 연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수령이시고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국을 해방하고 잃었던 민족의 존엄과 영예, 자주권을 찾아주신 위인이시라고 칭송하면서 그이께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세우시고 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데 대해 격찬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처럼 우리 민족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절세의 애국자는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그이의 사상과 업적은 력사에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은 해외연고자가족들속에서도 뜨겁게 발현되였다.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울화의 아들 장금천과 딸 장금록,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주보중의 딸 주위,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풍중운가족, 재중항일혁명투사 서순옥가족,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인 상월선생의 아들 상소위, 채세영가족, 재중항일혁명투사 리재덕의 아들 우명, 재중항일혁명투사 리민의 아들 진효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고자가족들에게 뜨거운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감명깊게 되새겨보면서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있을것이라고 뜨거운 격정을 토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가수후비육성에 일생을 바치다

김초심이 키운 명배우로 이름난 제자들

올해 89살인 고령의 나이에도 교단에 서있는 교육자가 있다면 사람들은 믿기 어려울것이다. 더우기 그는 조국해방전쟁에 참전하여 부상당한 영예군인이다.

그가 바로 평양제2음악학원에서 교수활동을 하고있는 김초심교원이다.

그는 지난 50여년간 평양인흥중학교(당시), 평양학생소년궁전, 평양제2음악학원 등에서 성악가수후비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냈다. 그의 제자들가운데는 한때 일본각지에서 동포사회를 들썩케 한 이전 보천보전자악단의 김광숙, 전혜영, 조금화, 리분희를 비롯한 명가수들과 오늘날 인기있는 공연활동으로 관중들의 절찬을 받고있는 중요예술단체들의 명배우들이 많다. 그는 조기교육으로 이름있는 녀성가수들을 수많이 키워냈다.

그의 제자들은 《노래형상을 잘하는것은 가수들의 연주활동에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김초심선생님은 어릴때부터 우리들에게 과학적인 발성원리와 방법을 깊이 체득시켜주었고 우리식의 창법을 잘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여 화려한 무대에 나설수 있었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뿌리깊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그가 키운 어린 학생들은 례외없이 성공의 탑을 쌓았다.

그는 성악가수가 되자면 천성적인 목소리를 가져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유년시기부터 자기 체질에 맞는 발성훈련을 거쳐야 음역도 넓어지고 음색도 다듬어져 더 아름다와진다는 원리와 음악감정세계를 학생들에게 깊이 체득시킨것이다.

일단 교단에 서면 정열적인 그에게는 일화도 많다.

그가 평양인흥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을 때 학생들의 성악지도에 열중하느라 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음악실 창문너머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계시는것도 몰랐다고 한다.

언제나 그의 가슴속에는 후대들을 위한 일을 제일로 중시하는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교육자답게 더 많은 재능의 싹을 찾아 훌륭히 꽃피울 한마음뿐이였다.

그 불같은 마음과 열정이 그로 하여금 유능한 성악가수후비들을 끊임없이 육성하게 하였다.

그 나날 그는 우리 민족의 감정과 정서에 맞는 발성법과 창법, 10대 초엽의 학생들을 조기변성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 각이한 나이와 성격, 취미 등에 따르는 많은 성악리론들과 교수방법들을 내놓았다.

그에게는 수많은 학생들의 심리적특질, 체질적특성, 기량훈련에서의 기술적인 세부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부피두터운 책이 있다. 그는 이 책에 기초하여 학생들에 대한 성악지도를 과학적으로, 방법론있게 진행한다.

그는 학생들에게 피아노와 기타, 손풍금 등을 능숙하게 다루도록 하며 몸가짐과 언어표현방법, 인사례절 등도 품들여 가르치였다.

그는 자기가 키운 학생들과 제자들이 국내, 국제무대들에서 관중들의 절찬과 사랑을 받을 때면 무한한 긍지와 행복감에 휩싸인다.

그는 가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한생의 태반을 가수후비육성에 바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학생들을 키우면서 오히려 배운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로력영웅, 인민교원, 공훈예술가이다.

그의 교수활동은 계속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해외에로 공연활동무대를 넓혀가던 나날들을 회고하며

꼬마신동들

평양교원대학부속 모란봉구역 개선유치원에서 놀라운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다.

원장 홍미향은 《유치원시기 어린이들에 대한 지능교육은 앞으로의 성장에서 큰 밑천으로 됩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의 지능계발에 도움이 되는 주산, 속독, 청음, 외국어교육, 바둑, 장기, 미술 등 50개 과목에 대한 과외교육에 힘을 넣고있는데 그 실효가 큽니다.》라고 말하였다.

유치원에서 지능교육을 심화시킨 결과 5, 6살 어린이들속에서 뛰여난 재능들이 발휘되고있다.

아래에 신동들을 소개한다.

청음으로 수를 계산하는 어린이

조태흥

6살 난 조태흥은 7화음까지도 정확히 알아맞히는 절대적음감이 뛰여난 어린이이다.

주산교육을 받아 8자리수, 9자리수에 대한 곱하기속셈에도 능한 조태흥은 청음으로 수를 계산하는 능력도 뛰여나다. 그는 0.6초간격으로 들리는 50개 음을 수로 전환하여 계산하는데 다른 음이 들리는 속에서도 그의 답은 언제나 정확하다.

어른들 못지 않는 속독술

5살 난 리일명어린이는 수기억과 주패기억, 그림기억이 뛰여나다.

2진수기억에서 일명은 10분동안에 400개를 기억할수 있으며 주패기억은 3분이내에 한몫을 기억할수 있다. 책을 많이 읽는 그는 체험이 부족한 어린 나이의 약점을 극복하고 이야기를 잘 엮어나감으로써 훌륭한 속독술을 소유하고있다.

뛰여난 영상화능력으로

김주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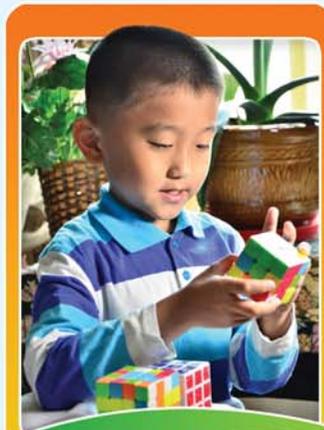
7화음에 대한 청음을 하면서 3개의 6면체를 5분이내에 맞추어내는 김주령의 나이는 6살이다.

높은 영상화능력으로 6면체를 맞추는 그는 수계산과 속독술에도 뛰여나며 외국어도 잘한다. 현재 주령이가 소유하고있는 외국어단어량은 1 500개정도이다.

전문가들도 감탄할 정도로

손에 익은 크레용이 아니라 붓으로 그것도 단붓질법으로 화조화를 훌륭히 형상해내는 강권영어린이.

참대와 물촉새, 장미 등 대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와 섬세하고도 치밀한 채색기법으로 형상된 어린이의 그림들은 전문가들도 감탄할 정도로 훌륭하다.

리일명

어린이의 재능이라고 보기에는 그저 놀랍기만 하다.

뛰여난 상상력과 관찰력, 집중력 그리고 유연한 손놀림을 요구하는 조선화의 몰골기법을 권영이는 벌써 6살에 원만히 수행하고있다.

신동들의 모습은 비단 이곳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어린이들의 천성적인 소질을 찾아 적극 계발시켜주는 정연한 교육체계에 의해 어린이들은 어디서나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강권영

글 본사기자 김리정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상식

변하지 않는 고구려무덤벽화의 색채

고구려무덤벽화는 고구려시기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 슬기와 재능을 반영하고있는 조선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고구려무덤벽화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감탄하고있는것은 오늘까지도 벽화들의 색채가 그대로 보존되고있는것이다.

고구려무덤벽화에 리용된 채색재료는 천연수성안료이다.

이 안료는 물기조절에 따라 진하게 또는 연하게, 두껍게 혹은 엷게 칠할수 있고 바탕재료에 따라 각이한 농담조절로 독특한 색채적효과를 낼수 있다.

고구려화가들은 회죽을 벽에 바르고 마르기 전에 여러가지 색재료들로 다양한 채색원리들을 잘 활용하여 묘사대상의 색채적특성이 선명하게 살아나도록 함으로써 사물현상을 아주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이렇게 그려진 고구려무덤벽화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색채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고구려무덤벽화의 채색법은 중세 전기간 다듬어지고 세련되면서 점차 민족적정서가 반영된 전통채색화의 화법적특징으로 되였다.

다양한 내용과 대담한 구상, 풍부한 회화적언어와 높은 표현기교로 일관된 고구려무덤벽화는 중세 우리 나라 회화의 토대로 되였으며 일본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회화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해당 부문 전문가들은 고구려무덤들의 벽화들을 분석해보고 그것들이 매우 발전된 기법으로 훌륭하게 형상되였다는것을 인정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장내비루스의학자

김성택

얼마전 우리는 옥류아동병원에서 젖먹이어린이들에게 예방약을 접종하고있던 한 의학자를 만나게 되였다.

그는 평양의학대학 비루스연구소 장내비루스연구실 실장 김성택이였다.

접종을 마친 후 우리와 마주앉은 그는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인 로타비루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갓난아이로부터 5살까지의 어린이들속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로타비루스성설사증은 집단설사를 일으키는 전염병으로서 사망률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김성택이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것은 지금으로부터 34년전이였다.

그가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박사원에 들어갔을 당시 조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감염경로가 명백치 않은 어린이설사증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있었다.

그는 어린이설사증의 원인과 치료를 연구과제로 삼았다. 그의 결심을 제일먼저 지지해준 사람은 어느 한 사범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아버지 김만룡이였다. 아버지는 아동심리학박사였다. 일본에 살 때 그의 아버지는 설사증으로 운명한 젖먹이동생을 늘 생각하며 의학공부를 하고싶어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하였었다. 조국에 온 후 아버지는 자기의 꿈을 다름아닌 맏아들 성택이가 실현해주기를 바랐었다.

이렇게 되여 그는 의학연구사업에 자신의 몸을 잠그게 되였다. 그는 여러 병원의 소아과에서 어린이설사증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3년만에 그는 어린이설사증을 일으키는 주요인자인 로타비루스의 림상역학적특성을 밝혀냈다. 하지만 그것은 연구사업의 시작에 불과하였다.

로타비루스성설사증에 대한 연구는 당시 세계적으로도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해마다 1억명이상의 어린이들이 로타비루스성설사증으로 앓고있으며 약 50만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의학계에서는 부유한 나라이든 가난한 나라이든 모든 나라의 5살미만 어린이들이 이 병을 앓기때문에 일명 《민주주의적인 감염증》으로도 부르고있었다.

그는 진단액을 개발한데 이어 조국에 흔한 산열매와 약초를 리용하여 치료약도 만들었다.

그의 노력에 의해 조국에서는 로타비루스성설사증에 의한 어린이사망률이 대폭 낮아졌다. 그는 이 연구성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후 그는 예방약연구에 또다시 달라붙었다. 그 과정에 그는 로타비루스성설사증에 걸린 젖먹이어린이의 기저귀와 접촉한적이 있었다. 그러다나니 50대인 그도 병에 감염되였다. 아이들만 비루스에 감염되는것으로 알고있었던 그는 어른들도 결코 례외가 아니라는것을 새롭게 알게 되였다. 많은 사람들은 성택의 건강을 념려하면서 한시바삐 그가 이미 개발한 치료약을 투약할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그는 약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온몸의 수분이 빠져 의식이 혼미해지는 속에서도 그는 병으로 인한 자기의 몸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증상들을 빠짐없이 연구일지에 기록하였다. 3일째 되는 날 그는 예방약을 개발할수 있는 실마리를 끝내 찾아내고 의식을 잃었다.

그가 이렇게 연구한 예방약은 동물실험을 거쳐 완성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그는 이 예방약을 갓난아이들에게 접종하는 조건에서 인체에 어떠한 부정적후과도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는 확고한 담보를 얻고싶었다. 과연 어느 어린이에게 먼저 접종할것인가를 놓고 그는 생각이 많았다. 림상실험에서 부정적후과를 예견하여야 하므로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었기때문이였다.

첫 접종대상자선택으로 고민하던 그의 눈앞에 먼저 떠오른 어린이는 3살 난 맏손자였다. 집식구들은 하루빨리 로타비루스성설사증예방약을 완성하여 나라의 미래인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는 그의 결심을 지지해주었다.

첫 실험에서 성공한 후 그는 몇달어간에 2 0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예방약을 접종하여 면역성, 반응성,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좋았다.

이 약이 개발됨으로써 로타비루스성설사증을 99.8%수준에서 예방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김성택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명예나 보수를 바라고 이 연구사업을 시작하였다면 거의 반생에 가까운 30여년세월을 끝까지 한길만 걸어오지 못했을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사업은 곧 조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김성택의 가정

상식

앙부일구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시간을 재는 여러가지 기구들을 만들어 생활과 생산활동에 리용하여왔다.

그중의 하나가 해시계인 앙부일구이다.

앙부일구는 1434년에 조선의 천문학자들과 기술자들의 협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천문관측기구이다.

이 시계의 주요부분은 해그림자를 받는 절반공면그릇과 해그림자를 이루게 하는 그림자막대기의 두가지로 되여있다.

그림자막대기는 공면에 가로붙어있으며 막대기의 앞끌(꼭대기)은 공면의 모임점(중심)과 일치되여있다.

공면그릇의 외면밑에는 네개의 받침대(발)가 붙어있어서 그릇을 수평면우에 안정하게 놓을수 있게 되여있다. 공면에는 시간을 표시하는 선들이 그려져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시간표시도 되여있다.

뿐만아니라 이 시간선들과 직각으로 사귀는 절기선들이 그려져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24절기표시도 되여있다.

시계가 정확히 설치되면 그림자에 의해 임의의 시각에 시간을 알수 있다.

앙부일구는 해시계로서는 완성된 형태이며 평면그림자판으로 된 해시계보다 정확도가 높다. 그것은 천구를 그대로 공면으로 축소한데로부터 오차가 적기때문이다.

이처럼 앙부일구는 조선민족의 뛰여난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자랑높은 민족유산의 하나이다.

* * *

《백살차》로 불리우고있는

백산차

최복실

기관지염
기관지천식
국소자극
감기
머리아픔
혈압낮춤작용
류마치스관절염
신경통 등에 특효

최근 하나의 사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백산차를 즐겨마시는 사람들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있는것이다.

그 비결에 대하여 파헤쳐보려고 한다.

- 밝혀진 백산차의 약효 -

신성무역총회사 연구사 최복실(55살)은 하루에도 때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군 한다.

그때마다 그는 백산차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군 한다.

《저는 백산차를 정상적으로 마십니다. 건강음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고 최복실연구사는 서두를 떼였다.

지금으로부터 23년전 그는 악성종양으로 하여 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몇달밖에 살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었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과 당시의 고려의학과학원 실장이였던 남편의 극진한 치료속에 그는 20년나마 생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2년전부터 그의 병상태는 급격히 하강선을 그었다.

남편의 사망이 그에게 심리적타격을 주었던것이다.

그는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매일같이 담당의사가 찾아와 그를 치료해주고 힘을 주었지만 그의 병세는 야속하게도 호전되지 않았다.

최복실연구사는 생명이 꺼지기 전에 남편이 생전에 썼던 의학도서들인 《자연에서 건강을 찾자》, 《다시 찾은 건강의 묘방》 등을 하나하나 펼쳐들었으며 채 쓰지 못한 도서도 보게 되였다.

거기서 최복실연구사는 남편이 연구하다 완성하지 못한 원종백산차에 대하여 읽게 되였다.

백산차는 조국의 북부의 해발 800~2 400m의 높은 산 또는 고원지대의 누기진 곳에서 자라는 진달래과에 속하는 사철푸른 작은 떨기나무이다.

예로부터 독풀이약으로 리용해온 백산차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사람의 몸에 산생된 독과 로페물을 성과적으로 제거해줌으로써 놀라운 치료작용을 나타낸다고 되여있었다.

산생된 독과 로페물을 성과적으로 제거한다는 문구는 최복실연구사의 눈길을 모았다.

그는 남편이 연구하던 백산차잎을 조금씩 달여먹었다. 그가 처음 차를 마시기 시작해서 며칠후부터는 강한 리뇨작용이 나타났다.

하루가 다르게 최복실연구사의 몸상태는 현저히 호전되였다. 그는 백산차가 사람의 몸에 쌓여있던 독성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준다는 연구자료가 옳다는것을 증명하게 되였다.

그는 전문가들의 방조밑에 원종백산차에 대하여 연구사업을 심화시켰다. 백산차잎의 성분을 얇은층크로마토그라프법으로 분리하였으며 백산차의 놀라운 약리작용도 하나하나 밝혔다. 뿌리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 향기를 내는 정유가 들어있는데 백산차에는 콜레스테롤낮춤작용과 간보호 및 간경변방지작용 등에 쓰이는 우르솔산, 오줌내기작용을 하는 아르부틴, 암예방에서 잠재적인 작용을 하는 핵산 등이 들어있다는것과 많은 광물질들이 포함되여있다는것도 알게 되였다.

그는 원종이 나는 곳을 찾아 몇번이나 걸음을 하였다.

최복실연구사는 자기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이 차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처음에는 설마, 진짜 하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차를 마시고 하나둘 인식을 달리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우동 62인민반에서 사는 오영남(57살)은 당뇨병으로 7년간이나 고생하다가 이 차를 4달동안 마시고 혈당을 떨구었으며 정상상태로 개선되였다. 백산차를 마시는것은 그 집의 하루일과처럼 되였으며 젊음을 주는 이 차를 《백살차》라고 부르고있다.

락랑구역 승리1동 54인민반에서 사는 현정영(48살)녀성은 만성결막염으로 고생하다가 이 차를 마시고 3일만에 눈이 깨끗해졌다고 한다.

보통강구역 붉은거리1동 48인민반에서 사는 김은숙(65살)로인은 골송소증증세가 악화되여 오른손의 집게손가락이 썩어들어가 수술하려고 마음먹었댔는데 백산차를 마시고 또 그 잎으로 손가락을 감싸서 찜질하였다. 그랬더니 이튿날부터 부종이 내리고 곪았던 자리가 많이 호전되였으며 며칠후부터는 새살이 돋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수술을 받지 않고도 손가락을 보존할수 있

었다. …

백산차에 대하여 다 헤쳐보았다고 할수 없지만 최복실연구사는 백산차에 대한 연구를 계속 심화시키고있다.

- 펼쳐보는 백산차의 래력 -

백산차는 예로부터 그 약효와 차로서의 가치가 있는것으로 하여 그 이름이 자자했다.

조국에서는 조선봉건왕조시기 백산차를 중국에 수출하였다. 청나라 건륭황제때의 기록에는 조선에서 백산차를 수입해왔다고 하였다.

청나라 건륭황제는 18세기부터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백산차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왕궁에서 리용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당시 우리 나라의 정약용과 차도의 대가들도 백산차를 으뜸가는 차라고 평하였다.

1853년에 우리 나라의 한 시인은 《백산차를 노래하노라》라는 시도 지었다. 그 시가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정약용의 제자가 쓴 《동차송》에는 백산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여있다.

《바위의 청결한 곳들에서 자생하는데 높이는 한자정도이고 잎은 버들잎모양으로서 맛과 향기가 좋다.》

백산차의 변종으로 조국에는 가는잎백산차, 왕백산차, 긴잎백산차, 애기백산차, 털백산차 등이 있다.

일부 책들에는 변종도 백산차와 같이 쓰인다고 기록되여있으나 그 약리작용과 효과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것으로 증명되여 현재 연구가 심화되고있다.

최복실연구사는 이렇게 말하고있다.

《금수강산인 조국에는 좋은 약초, 약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린시절 달나라의 옥토끼가 동생토끼의 병을 고치려고 지구에서 제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맑은 아침의 나라의 북쪽에 찾아와 갖가지 보약을 가져갔다는 옛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아마 산삼이나 록용을 가져갔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백산차까지 가져갔을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엄향심

주저없는 행동, 만사람 감동

생활하는 과정에 뜻밖의 사고나 부주의로 생명을 잃거나 장애자가 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모든것이 정상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천만다행이라고 말하고있다.

지난 5월 어느 일요일 평양시 서성구역 와산동 72인민반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늘 장난이 심하여 부모들과 주변사람들을 놀래우군 하던 3층에 사는 장려송(5살)어린이가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일을 쳤던것이다.

낮잠을 자다가 일어난 어린이는 베란다에 나가 놀다가 무슨 《용감성》이 생기였는지 좁은 베란다턱에 올라섰다. 그만 10m높이에서 려송이는 떨어졌다. 순간 살림집주변에 있던 마을녀인들과 지나가던 길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아츠러운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어린이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것이나 다름없었다. 위기일발의 순간 그앞을 지나가던 나이지숙한 남성이 어느새 몸을 던져 떨어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뒤로 나자빠졌다. 불과 1~2초사이에 벌어진 일이였다. 숨을 죽였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주위의 사람들은 쓰러진 남성에게서 어린이를 받아안았다.

너무 놀란 어린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으며 다리는 세차게 떨고있었다.

이어 어린이를 후송하기 위하여 길가던 차들이 멈추어섰고 교통안전원들은 어린이를 태운 차에 우선권을 부여해주었다.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아3외과에서는 실려온 장려송어린이에 대한 렌트겐, 초음파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린이를 구원한 남성과 어린이를 안고온 녀인, 운전수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있었다.

김철민의사가 《처음에 배가 너무도 나와서 장파렬이 아니겠는가 하고 의심을 하고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든 지표가 정상입니다. 그러나 센 충격을 받고 놀랐으므로 보름동안 병원에서 안정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하고 말해서야 기다리던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어린이를 구원한 남성도 팔과 다리, 허리부분에 다소 어혈이 져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어린이가 정상이라는 말을 듣고는 《정말 천만다행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가 바로 서성구역인민위원회 부부장 강성남(59살)이였다.

우연한 기회에 강성남부부장을 만난 기자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우에서 물체가 떨어지면 피하는것이 본능적인 행동인데 어떻게 순간에 그런 결심을 내리게 되였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때 정황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였을것입니다.》

그의 말은 겸손하였다. 중요하게는 인민정권기관에서 일하는 일군다운 책임감이 그런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보는것이 옳을것이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20kg의 물체가 10m높이에서 떨어질 때의 그 질량은 본래보다 몇십배로 커진다고 한다. 이에 비추어볼 때 평범한 일군인 그가 안전하게 어린이를 받았다는것은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였다.

때늦게 병원에 도착한 장려송의 어머니인 엄영심녀성은 강성남부부장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손을 번갈아잡으며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를 못 보는줄 알았습니다. 이 은혜를…》하며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지금 장려송어린이는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며 주산도 뛰여나게 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하지만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장난이 무척 세차고 엉뚱한 생각을 잘해 그의 일거일동은 부모들은 물론 선생님들의 시야속에 있다. 종전과 같이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글 본사기자 김승기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강성남(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구원한 장려송과 그의 부모들

미래가 웃는 땅

(전호에서 계속)

《세상에 부럼없어라!》

몇해전 나의 평양방문일정마감을 뜻깊게 장식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대한 참관은 공화국의 숭고한 후대관, 미래관에 대해 더 깊이 알게 한 또 하나의 인식과정이였다.

예로부터 왕들이 사는 집을 궁전이라고 불렀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력사와 전통, 자태를 자랑하는 궁전들이 수없이 많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다수의 궁전들은 국가권력을 한손에 틀어쥔 최고통치자들이 자기의 위세를 뽐내기 위해 수천만금을 탕진하면서 세운 궁전으로서 호화와 사치의 대명사로 되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에는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리우는 아이들의 궁전이 곳곳마다에 서있다.

그들이 즐겨부르는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태여나면 애기궁전, 자라나면 소년궁전 실로 공화국은 어디 가나 아이들의 궁전천지이다.

그가운데서 공화국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그대로 응축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야말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 사랑이 넘쳐흐르는 따뜻한 요람,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만복의 궁전이다.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안을듯, 어머니라 목청껏 부르며 그 품에 달려가 안기고싶은 간절한 소망을 금시라도 풀어주려는듯 두팔을 벌리고 서있는 궁전의 겉모양이 나의 마음을 자석마냥 끌어당겼다.

궁전안은 또 어떤가.

마치도 동화세계에 들어온듯 마음은 대번에 흥그러워졌고 날개라도 돋쳤는가 걸음은 아이적시절처럼 가벼워만 졌다.

크나큰 건물의 내외부를 수천수만금을 들여 훌륭히 개건한것이 무척 놀라웠다. 더우기 여기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자자녀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 틔워주고 아름답게 꽃피워주는 종합적인 과외교육교양기지라는 생각에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특색있게 만들어진 책걸상들이 갖추어진 소조실에서 나라의 기둥감, 미래의 인재들로 자라나고 있는 콤퓨터소조원들의 모습이며 자기도 모르게 방실방실 넘쳐흐르는 웃음을 입가에 가득 담고 자기들의 행복상을 갖가지 색실로 한뜸두뜸 수놓아가는 수예소조원들의 모습은 참으로 대견하였다.

전문배우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훌륭하게 꾸려진 소조실에서 배우는것이 너무도 기뻐 이마에 송골송골 내돋는 땀방울을 훔칠념도 하지 않고 무용동작과 기법들을 익혀나가는 조선무용소조실의 수십명 소조원들은 또 얼마나 귀염성스러운가.

실로 꿈만 같았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수 없는 행복의 궁전에서 특별대우까지 받으며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쳐가는 저 아이들이야말로 진정 행복의 꽃수레를 타고있는 나라의 왕이 아니겠는가.

각종 전자악기들에서 울려나오는 경쾌하고도 박력있는 선률 또한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앞날의 연주가들의 얼굴마다에 넘쳐나는 저 밝은 웃음을 지켜보느라니 10년만이 아니라 20년, 30년은 더 젊어질것만 같았고 나도 두번다시 태여나 이런 궁전에서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펴고싶은 생각이 절로 들어 마음은 한없이 즐거워만졌다.

맑은 물 출렁이는 수영관의 물소리 또한 유정하게 들려왔다.

국제경기도 할수 있을 정도로 품들여 꾸려놓으니 아이들이 물속에서 통 나오려 하지 않는다고 웃음절반, 자랑절반으로 터놓는 지도교원의 《걱정거리》 또한 나의 마음을 흥그럽게 하여주었다.

야외에서도 자동차들을 타고 교통안전규정을 쉽게 배울수 있는 실습장에서 씽씽 달리며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자동차소조원들의 열정넘친 모습을 나는 가슴가득히 안아보았다.

과목별, 종목별, 부문별특색이 살아나도록 독특하게 꾸려진 각종 소조실들과 훈련장들, 어떤 형태의 예술공연도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현대적미감과 동심에 맞게 개건된 극장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휴식시간이 되자 저저마다 새로 놓인 폭신한 의자들에 앉아 재롱을 부리는 그 모습들, 단 한점의 그늘도 찾아볼수 없게 마음껏 웃고 떠드는 그 얼굴들이 나의 망막에서 사라질줄 몰랐다.

아이들은 가식을 모른다. 때문에 그들은 기쁨과 행복을 감출줄 모른다. 이제 저애들이 자라 어른이 되면 늘 입가에서 웃음이 가실줄 모르고 행복속에 보낸 어린시절을 두고두고 추억할것이다. 또 자기들을 소중히 안아키운 고마운 품,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자기의 미래도 그처럼 아름답게 가꾸어나갈것이다.

나는 정녕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야말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까울것이 없다는 숭고한 미래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김정은**령도자께서만이 안겨주실수 있는 또 하나의 후대사랑의 결정체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나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고나서 격정에 겨워 목청껏 소리치고싶었다.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아이들아, 하늘같은 사랑, 바다같은 은정이 너희들을 보살펴주고있단다. 그 따사론 품속에서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하늘땅 저 멀리 메아리쳐가도록 더 크게 웃어라. 마음껏 노래하거라. 앞날의 강성조선이 바로 너희들의것이다.

* *

인생말년에 처음으로 공화국을 방문한 나의 소감이 너무 협소한것 같다.

밤이 지새도록 끝없이 말하고만싶어지는 별천지와도 같은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

지금 서방에서는 《폐쇄사회》니, 《금단의 땅》이니 하며 공화국의 《인권》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그들이 공화국의 현실을 이처럼 애써 외면하며 《북인권》문제를 그토록 목이 쉬게 불어대는것은 참다운 인권요람, 인권왕국인 조선의 실상이 서방세계에 전파되는것이 두려워서일것이다.

나는 행성에 어지럽게 나도는 《북인권》설에 오염된이들에게 권고하고싶다.

여러분들이 진실을 바로 알자면 조선에 직접 가보아야 한다.

참다운 인권존중의 세상이 바로 공화국인것이다.

인민의 만가지 꿈과 리상이 찬란한 현실로 꽃펴나는 공화국은 오늘도 강하지만 미래는 더욱더 휘황찬란할것이다.

(끝)

재미동포 박윤자

8월의 절기와 민속

8월의 절기에는 립추와 처서가 있다.

립추는 가을이 시작된다는 뜻이며 처서는 여름더위가 가셔지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올해의 립추는 8월 7일이며 처서는 8월 23일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농작물이 무르익는 이 시기에 돌피잡이를 하거나 새 또는 짐승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해농사를 위한 풀베기와 김장용남새를 심고 가꾸는 일을 하였다. 남새로는 주로 무우, 배추를 심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에 다양한 민족춤을 추거나 민속놀이를 하였다.

대표적인 춤으로서 어깨춤과 손벽춤을 들수 있다.

어린이들은 상대편의 진을 어느 편이 먼저 점령하는가를 겨루는 진놀이와 기마수로 선정된 한명의 아이를 여러명의 아이들이 받쳐올리고 상대편의 기마수를 공격하는 기마전놀이를 즐겨하였다.

선조들은 8월의 절기에 맞게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먹었다.

대표적인 음식은 수단이다. 수단은 찹쌀 또는 백미, 찰수수가루로 밤알만 하게 빚고 끓는 물에 삶아 찬물에 씻은 다음 꿀물이나 오미자물에 담그어먹는 음식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처럼 오랜 옛날부터 매 절기의 계절적특성에 맞게 다양한 생활풍습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이어왔다.

본사기자

유모아

아버지가 몇인가?

한 농부가 물건을 사려고 가게방으로 들어갔다. 가게방주인은 수판을 튕기다가 농부에게 롱조로 물었다.

《임자한테 아버지가 몇이나 있나?》

《나한테는 아버지가 셋입니다. 친아버지와 가시아버지, 양아버지 이렇게 셋이지요.》

농부는 대답하고나서 주인에게 되물었다.

《주인님은 아버지가 몇입니까?》

가게방주인은 멋적게 되여 대답을 못하였다. 그는 농부의 물음을 못들은척 하고 수판을 계속 튕기였다.

그 모양을 한참 바라보던 농부가 한마디 던지였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으면 수판으로 계산할가?》

* * *

죄악의 력사를 되살리려는 일본

일본이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공포한때로부터 111년이 되였다.

《한일합병조약》은 일본이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조작해낸 불법비법의 문서라는것을 다시한번 파헤쳐본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에 이어 또다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낸 일본은 조선인민에게 망국노의 치욕을 들씌웠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의하면 조약체결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하며 위협과 강제가 작용하면 그런 조약은 성립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은 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문건조작장소인 경성(서울)일대의 주요지점들에 수많은 침략군을 집결시켜놓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조선정부에 위압감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면밀한 작전밑에 일본은 1910년 8월 22일 경성 한복판에 수천명의 병력을 끌어들이고 군함으로 위협공갈하면서 《한일합병조약》을 강압적으로 날조하였다.

조선인민의 거세찬 반일투쟁기세에 겁을 먹은 일제는 협잡문서를 공포하지 못하고있다가 8월 29일에야 공포하였다. 이 한가지 사실만 보아도 《한일합병조약》이 불법무도의 협잡문서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일제가 감행한 《한일합병조약》의 날조는 5천년의 력사와 문화를 가진 조선의 국가실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전대미문의 가장 악랄한 국권강탈책동이였다.

일본의 극악무도한 파쑈폭압통치 40년간 조선인민이 강요당한 식민지민족의 재난과 비극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아물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꽃망울도 채 피여보지 못한 10대의 애어린 소녀들을 비롯한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 유괴하여 전쟁터에 끌고다니면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었다.

일본은 군사적강점기간 헤아릴수 없이 많은 조선의 귀중한 력사문화재와 자연부원을 마구 파괴략탈하고 조선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무참히 짓밟았다.

지어 조선사람의 말과 글, 성과 이름까지도 빼앗으려고 미쳐날뛰였다.

세월의 흐름은 아픔을 가셔준다고 한다.

하지만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일제의 온갖 죄악은 잊혀질수도 덮어버릴수도 없다.

일본이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한세기가 넘는 지금까지도 일본은 지난날의 치떨리는 만행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오만무례하게 놀아대고있다.

오늘 일본의 군국주의적광기는 도를 넘고있다.

일본은 패망의 앙갚음을 하려고 군사력을 야심적으로 키워오고있으며 현행헌법을 뜯어고치기 위해 책동하고있다.

일본집권자를 비롯한 일부 각료들이 야스구니진쟈에 공물을 봉납하고있으며 전 수상 아베는 직접 야스구니진쟈에 찾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이것은 저들의 침략력사에 대한 공공연한 찬미이며 위험천만한 군국주의부활책동이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지난 세기 일본이 총칼을 휘두르며 아시아를 메주밟듯 하던 때를 재현해보자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

현재 일본은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위대》를 공격형무력으로 전변시켰으며 《국제적인 공헌》이라는 구실밑에 해외파병을 강화하고있다.

일본은 새로운 무장장비개발과 배비에도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어느 한 신문이 전한데 의하면 지금 일본은 방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사거리가 약 2 000㎞에 달하는 유도탄을 개발한것과 동시에 현재 《자위대》가 보유하고있는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1 500㎞로 늘이려고 하고있다.

만일 그것이 실현되는 경우 중국까지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일본정계에서 《전수방위라는 사고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일본에서 벌어지고있는 광란적인 군사적움직임과 련이어 튀여나오는 정객들의 망발은 사태의 엄중성을 다시금 시사해주고있다.

그것은 선제공격능력을 갖추어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침략적본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이제는 위험단계를 넘어섰다는것이다.

그만큼 일본은 재침에 열이 오를대로 올랐다.

얼마전 일본수상 스가는 헌법개악을 추진하고있는 단체에 현행헌법에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이 제창하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과 새로운 시대라는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일본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포기》를 규정한 현행헌법의 제9조의 1항과 《교전권포기 및 전투력불보유》에 대하여 명기한 2항에 의하여 법적으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또 교전권도 가지지 못하게 되여있다.

이러한 현행헌법 제9조를 개악함으로써 합법적으로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려 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일본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외곡된 력사를 주입하여 그들에게 침략전쟁력사를 정당한것으로 인식시키려 하고있다.

최근에도 2022년부터 사용될 고등학교 력사교과서에 과거의 침략전쟁을 《문명》과 《번영》을 가져다준 《진출》이라고 표기하고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식민지지배, 일본의 성노예범죄에 대한 력사를 외곡서술하였다.

얼마전 일본정부가 각료회의에서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위안부》라고 해야 하며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였다는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결정하였다.

그야말로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행태이다.

일본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만든것이 당시 정부의 정책이 아니였으며 개별적인물에 의한것이라고 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이 피비린내나는 과거범죄를 어떻게 하나 미화분식하여 후대들에게 외곡된 력사관과 복수주의감정을 주입하여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해보자는것이다.

일본은 과거의 죄악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광성

일제가 날조한 《한일합병조약》원문

일제에 의해 황제복을 벗기운 순종

조선속담 (우둔성)

— 누워(서) 침뱉기

남을 해치려고 하면 도리여 자기가 해를 입는다는것을 이르는 말.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것도 모르고 우둔한짓을 하는 사람을 비웃어 이르는 말.

— 등불에 날아드는 부나비

제 죽을줄을 모르고 무모한짓을 하는것을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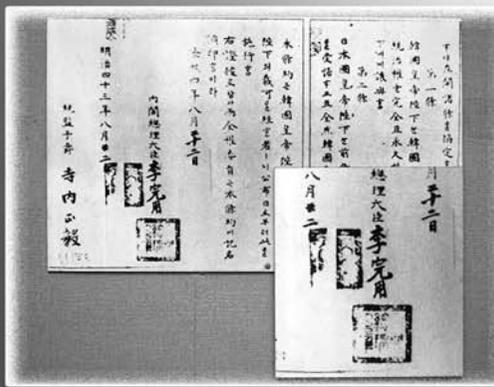
— 미련한 송아지 백정을 모른다

어리석거나 경험이 없어서 물정에 어두움을 이르는 말.

아무것도 모르고 덤벙덤벙 하는것을 이르는 말.

— 생나무 휘여잡기

되지 않을 일을 강다짐으로 하려고 무모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

* * *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27)

황해남도의 특산 — 몽금포까나리

까나리는 조국의 전 연해에 퍼져있는 맛이 좋고 단백질과 기름질, 회분이 많이 들어있는 물고기이다.

조선서해의 까나리는 보통 몸길이가 5~6㎝, 큰것은 10~20㎝, 25㎝까지 되는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까나리는 파도가 세차거나 맹어들의 피해를 받을 때에는 모래속에 몸을 숨기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로부터 바다가를 끼고 7~8리, 폭이 3~4리어간에 흰모래가 깔려있는 몽금포는 까나리들이 생존하는데 매우 알맞춤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주로 5~6월에 황해남도 몽금포앞바다에서는 류다르게 까나리가 많이 잡히는데 이맘때면 몽금포의 바다경치는 까나리를 잡는 크고작은 고기배들로 장관을 이룬다.

몽금포까나리는 조선서해의 까나리들중에서 특별히 맛이 좋아 예로부터 대내외적으로 조국의 명산물의 하나로 널리 알려져있다.

배추국을 끓일 때 까나리를 조금만 넣고 끓여도 맛이 아주 좋아진다.

몽금포까나리는 배추국만이 아니라 국수의 꾸미로 쓰기도 하고 잡은 즉시 소금에 절여 까나리젓을 담그기도 하였으며 쪄서 말리워 오래동안 보관하면서 식생활에 리용하기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자반, 졸임 등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다른 음식의 맛을 돋구는 조미료대용으로도 널리 리용하였다. 특히 몽금포에서 잡은 까나리로 만든 자반은 황해남도지방의 이름난 료리의 하나로 손꼽히였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신광일

상식

쑥의 약효

여름이면 우리 나라의 산과 들에는 영양물질과 약성분이 있고 향기와 단맛을 내는 좋은 풀들이 많이 돋아난다.

우리 조상들은 더위속에서 농사일이 계속되는 여름철에 영양가와 약효가 높은 풀들을 뜯어다가 가공하여 먹음으로써 잡병을 물리쳤으며 건강을 보존하였다. 그중에는 쑥도 있다.

쑥은 우리 나라의 그 어디에나 있는 다년생풀이다.

쑥에는 단백질과 당질, 광물질과 여러가지 비타민 등 사람의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쑥은 약효가 높기때문에 위를 든든하게 하고 피부병을 고치며 아픔과 피를 멈추는데 널리 쓰인다.

쑥은 피부진균의 생장번식을 억제하는것을 비롯하여 여러종의 균을 죽이고 독을 풀어주는 작용을 한다. 쑥을 말리워 베개를 만들어베면 혈압이 내려가기도 한다.

그리하여 고려의학에서는 쑥을 《애엽》이라고 하며 중요한 약재로 쓰고있다.

*　*　*

중세시기의 성악연주형식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민족은 수많은 민족음악유산들을 창조하고 발전시켰다.

그러한 민족음악유산들가운데는 중세시기의 성악예술유산인 성악연주형식들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 중세시기는 B.C. 3세기 전반기 첫 봉건국가인 고구려가 성립된 시기로부터 19세기 60년대 중엽까지의 력사적시기를 포괄한다.

통일적인 민족국가로 형성된 고려시기부터 우리 나라 성악예술은 전문성악예술인들의 활동으로 성악예술의 종류와 연주형식들이 더욱 풍부화되고 창법들이 더욱 공고발전하게 되였다.

중세시기에 인민음악과 궁중음악, 도시음악의 급속한 발전은 궁중과 관청에 소속된 전문음악집단과 민간에 나타난 예술인집단, 도시가객들의 출현을 동반하게 하였고 그들에 의해 다종다양한 성악연주형식들이 창조되고 발전되였다.

그러한 성악연주형식들가운데서 대표적인 형식이 바로 독연적인 설화창형식이다.

설화창은 판소리작품의 기본연주형식으로서 한사람의 가수-연기자가 북장단에 맞추어 장편의 극적서사가를 창과 아니리로 엮어나가며 부르던 성악연주형식이다.

판소리가수는 해당 작품의 극적내용과 인물형상의 직접적체현자, 담당자, 종합적인 해설자로서 한 작품을 혼자서 무려 4~6시간동안이나 연주하였다. 판소리가수의 반주에는 순 고수의 북장단반주밖에 없었지만 창과 아니리와 함께 화용, 비용, 발림, 너름새와 같은 여러가지 표현수법들을 능숙하게 적용하여 관중이 지루감을 느낄사이없이 작품을 흥미진진하게 끌고나가는 높은 연주기량을 소유하고있었다.

중세시기 널리 보급된 성악연주형식들가운데는 또한 제창, 대창과 같은 성악안삼블형식도 있었다.

인민들속에서 널리 보급된 집단적가창활동에서는 물론 민간직업음악가들의 예술창조활동에서도 대창과 제창형식은 일찍부터 발생발전한 가창형식이다.

대창과 제창형식은 민간음악가들에 의하여 더욱 세련되였다.

《놀량사거리》를 비롯한 사거리류의 작품들과 《승지평양》과 같은 긴 잡가형식의 작품들은 주로 남녀대창이나 혼성제창형식으로 많이 불리워졌다.

제창은 일정한 성부구별이 없이 여러 사람이 동일한 선률로 함께 부르는 성악연주형식으로서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다성음악의 가장 일반적이고 오랜 연주형식의 하나이며 오늘날 직업적인 성악연주에서는 물론 대중가창에서도 널리 쓰이는 연주형식의 하나이다.

제창형식은 여러명의 가창자들이 하나의 성부로 노래하기때문에 노래의 사상적내용과 선률형상이 보다 명료하게 전달되며 선명하게 표현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오늘 성악예술부문에서는 전통적인 성악연주형식인 제창형식이 계승되고 시대적미감에 맞게 민요제창과 가요제창, 녀성제창과 남성제창, 아동제창 등으로 더욱 발전되게 되였다.

대창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노래하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성악연주형식이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대창은 15세기 중엽부터 활동한 직업적민간예술단체인 사당패의 기본연주형식으로 되였으며 그들이 창조한 가무대창은 후날 가무병창, 민요대창으로 발전하였다.

문헌기록에는 남녀사당들이 소고를 쥐고 두줄로 섰다가 녀사당들이 먼저 발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 그에 화답하여 남사당들이 받아넘기는 형식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중세시기 널리 보급된 성악연주형식가운데는 가무형식도 있었다.

가무는 춤과 노래가 결합된 성악연주형식으로서 연주형식의 예술성, 대중성, 통속성으로 하여 민간에서는 물론 궁중과 관청에서도 널리 연주되였으며 그 형식은 끊임없이 발전하였다.

함경도지방의 《돈돌라리》, 강원도지방의 《어랑타령》, 평안도지방의 《룡강타령》, 경상도지방의 《쾌지나 칭칭 나네》 등의 노래들은 인민들속에서 널리 애창되던 노래들로서 이러한 노래들은 많은 경우 가무형식으로 연주되였다.

이밖에도 중세시기 우리 나라 성악연주형식가운데는 좌창, 립창(선소리)도 있었다.

주체음악연구소 서경진

함경북도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3)

- 쌍계사 -

쌍계사는 함경북도 명간군 부암리에 있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절이다.

쌍계사는 《동국여지승람》이나 《북관지》에도 그 이름이 나오며 대웅전마루도리에서 나온 글에도 1395년에 건설되였다고 씌여있다.

쌍계사에는 중심건물인 대웅전과 애월루, 심검당, 산신각 등이 있다.

대웅전은 높직한 축대우에 기단을 쌓고 세운 단층겹처마합각집이다.

대웅전은 건물의 균형이 잘 잡히고 여러가지 나무조각들이 잘 배합된데다가 무늬가 다양하고 색조가 은은한 모루단청이 입혀져 건물의 품위를 돋군다.

애월루는 루마루형식의 루정으로서 단익공두공에 겹처마합각지붕을 얹었다. 정면 중심간에는 계단을 설치하여 오르내리게 하였다. 구조장식이 검소하나 아담한 루정의 특색을 잘 살리고있다.

심검당은 나지막한 축대우에 합각지붕을 하고있다.

쌍계사는 현재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다.

*　　*　　*

대웅전 두공렬과 처마

지명유래

황해북도의 일부 지명들

황해북도는 조국의 서부지방 중부에 위치하고있다.

도의 북부는 평양시와 평안남도, 동부는 강원도, 남동부는 개성시, 남부는 황해남도, 서부는 황해남도, 남포시와 접하여있다.

도의 이름은 주체43(1954)년 10월에 황해도를 두개의 도로 가르면서 황해도의 북쪽 내륙지대에 있는 도라는데로부터 황해북도로 불리우게 되였다.

황해북도에는 인류문명의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고조선시기의 유적인 경암동고인돌무덤과 봉산군 지탑리유적 등을 비롯하여 고인돌, 산성, 절간, 탑, 봉수대 등이 있다.

황해북도의 소재지는 사리원시이다.

사리원이라는 이름은 조선봉건왕조 초시기부터 불리워왔는데 원래 이 지명은 역원, 역참이름으로 되여있었다. 다시말하여 사리원이라는 이름은 사원리, 사리에 있는 역원이라는 뜻이다. (사원리와 사리는 오늘의 사리원시 원주동에 있었던 지난 시기의 행정구역이름이다.)

역원이나 역참은 봉건국가에서 주로 공문이나 급한 문건을 전달하거나 공무로 다니는 관리들이 말을 갈아타기도 하고 쉬기도 할수 있게 몇십리어간마다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놓은 곳을 말한다.

황해북도의 주요군으로서는 황주군과 봉산군이 있다.

황주군은 도의 북서부 대동강하류연안에 위치하고있다. 고구려시기에는 동홀(우동어홀)이라고 불리워왔으며 고려시기에 와서 황주로 불리웠다.

동홀은 《돌판에 있는 성》, 《돌판에 있는 고을》을 의미한다. 황주는 누런 흙으로 된 넓은 벌이 있다고 하여 그렇게 부르게 되였다.

봉산군은 도의 서쪽에 위치하고있다.

고구려시기에는 휴암군, 고려시기에는 봉주, 봉양군으로 불리우다가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413년에 와서 봉산군으로 불리웠다. 봉산군은 탈놀이와 봉산탈춤으로 유명하다.

황해북도에는 정방산, 경암산, 서흥호와 같은 이름난 명승지들도 있다.

정방산은 황해북도 사리원시 정방리에 있는 산이다.

정방산은 산마루들이 서로 잇닿아 정방형을 이루고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산에는 기묘하게 생긴 봉우리들과 약수터, 자연못 등이 있으며 고려시기에 쌓은 정방산성이 있다.

경암산은 사리원시의 중심부에 있는 산이다.

《봉산군지》에 의하면 봉우리의 생김새가 마치 닭의 볏처럼 생겼다고 하여 볏바위를 《별경》자와 《바위 암》자를 따서 경암산으로 표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경암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옛날 이 산의 이름을 닭산이라고 부르고 앞에 마주서있는 산은 삵산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닭과 삵은 수화상극이라고 하면서 이 닭산지구와 삵산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혼인관계도 맺지 않고 살아왔다고 한다.

두 마을의 좌상들은 이러한 페단을 없애기 위해 서로 마주앉아 두 산의 이름을 고치기로 합의하고 각기 자기 마을사람들과 토의하였다. 결과 삵산은 뽕나무와 매화나무가 많으니 상매산이라고 하였고 닭산은 이 산의 볏바위의 이름을 따서 경암산으로 고치기로 하였다. 두 산의 이름을 고친 후 두 마을사람들은 서로가 화목한 이웃으로 되였다고 한다.

서흥호는 황해북도 봉산군, 은파군, 린산군, 서흥군의 경계에 있는 저수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저수지를 봉건시기부터 불러오던 어지돈이라는 이 고장이름을 붙여 어지돈저수지라고 한다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고 서흥강을 막아 건설하였다는 의미에서 《서흥호》라고 부르도록 하시였다.

서흥호는 황해북도의 여러 군들의 부침땅들에 물을 대주는 관개용수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연구사 김광철

조선민요 《양산도》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민족문화유산에는 민요도 있습니다.

민요는 오랜 력사적과정에 인민대중자신이 고유한 민족적정서와 생활감정에 맞게 창작하여 일상생활에서 불러온 노래입니다.

민요는 인민들자신이나 가수들에 의하여 불리워지면서 구전으로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로,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에로 전파전승되여왔습니다. 하여 민요를 가리켜 인민가요 또는 인민창작가요라고도 합니다.

민요에는 당대의 시대상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생활세태와 풍습 등이 진실하게 반영되여있는데 크게 로동민요, 서정민요, 풍자민요, 세태민요, 풍속민요, 륜무민요 등으로 갈라볼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며 전해져온 조선민요는 《아리랑》, 《양산도》, 《룡강기나리》, 《닐리리야》 등을 비롯하여 그 수가 헤아릴수 없이 많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양산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양산도》는 평양지방에서 창작되여 점차 평안남북도를 비롯한 서도지방으로 보급되다가 전국적으로 널리 불리워진 노래입니다.

관서지방의 민요들은 대체로 선률진행이 밝고 명랑하며 부드럽고 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만치 굴림새가 많고 창법도 다른 지방에 비하여 독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양덕맹산 흐르는 물은 청류벽으로 감돌아든다》라고 한바와 같이 양덕, 맹산에서 흐르는 물결의 노래라는 뜻에서 《물결 도》자를 달아서 《양산도》라는 곡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양산도》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이야기도 전해져오고있습니다.

옛날에 양산도라는 이름을 가진 떼몰이군이 맹산에서부터 떼를 몰고 내려오다가 평양의 모란봉을 지날 때면 경치가 하도 아름다와 노래를 지어 부르군 하였습니다.

총각이였던 양산도가 노래를 어찌나 잘 불렀던지 민간에서 명창으로 소문이 나 하루는 그를 평양의 한 기녀가 자기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이날 양산도의 노래를 듣고 그에게 반한 기녀는 그것을 자신의 애창곡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평양에 올 때마다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산도는 그 기녀한테 자주 들리여 서로 가사를 보충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군 하였습니다. 이러한 나날을 거쳐 양산도는 목재업으로 부자가 되였으며 그 기녀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보다싶이 《양산도》는 오래동안 사람들속에서 제나름으로 불리워지면서 부단히 보충되여왔기때문에 가사가 다양하고 풍부해졌습니다.

그 가사들을 더듬어보면 조국의 아름다운 산천을 노래하는 산수풍경의 주제와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련정적인 주제, 리별의 애석한 마음이나 슬픔을 담고 이웃들과 친구간에 오고가는 정에 대한 주제도 있었습니다.

《양산도》는 다른 민요들에 비하여 한자어휘의 난해한 가사들이 적지 않았지만 오늘날 알기쉽게 통속적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에헤이에
양덕맹산 흐르는 물은
청류벽으로 감돌아든다
에루화 좋구나 금수라 강산
실버들 실실이 봄빛이로다
…

가사는 대동강을 따라 펼쳐진 양덕, 맹산과 평양의 명승들인 모란봉, 청류벽 등의 경치를 련상시키는 시구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조국강산에 대한 자랑을 담고있습니다.

노래는 오늘의 시대적미감에 맞게 녀성4중창, 합창, 관현악, 무용 등으로도 다양하게 형상되였습니다. 노래의 특색있는 장단은 흥겹고 명랑한 노래들에 널리 적용되면서 민족음악장단인 양산도장단이라는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9/8박자를 한소절단위로 하여 이루어진 양산도장단은 우리 인민의 밝고 아름다운 정서와 생활을 반영한 음악작품들에 많이 리용되고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양산도》를 비롯하여 알차고 구성진 조선민요의 가락들은 우리 선조들의 정서적감정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며 울리게 될것입니다.

본사기자 연 옥

www.korean-books.com.kp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